『朝鮮城址實測圖』와 倭城

-朝鮮總督府의 植民地 支配와 관련하여-

太田 秀春

1. 序 論
2. 植民地期에 있어서의 倭城硏究
3. 朝鮮總督府의 古蹟指定
4. 『朝鮮城址實測圖』에 대하여
5. 『朝鮮城址實測圖』에 보이는 倭城
6.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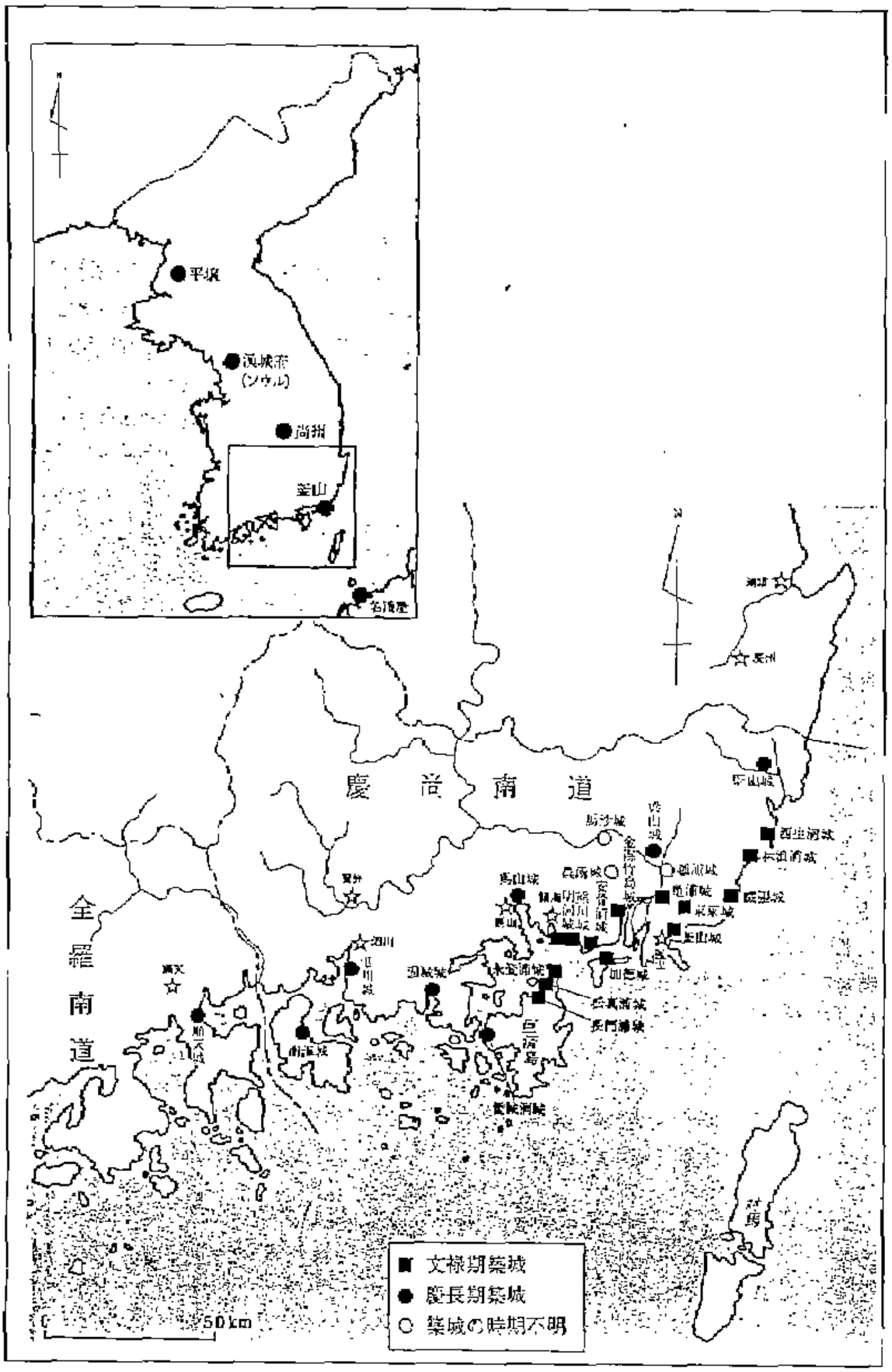
1. 序 論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논점의 하나에 壬辰倭亂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壬辰倭亂은 韓半島를 전장으로 日本·朝鮮·明 세 나라를 뒤흔든 一大戰爭이고 동아시아사에서는 꼭 언급되는 역사적 사건의 하나이다. 특히 韓日關係史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사 사실이고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壬辰倭亂 당시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나 壬辰倭亂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조선 식민지화의 과정에서 당시의 日本人들, 특히 식민지 지배를 추진한 사람들이 역사왜곡을 하면서 壬辰倭亂을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에 이용하였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당시의 식민지 당국이 그것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지적되어 왔을 뿐 구체적인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필자는 壬辰倭亂 때 日本軍이 축성한 日本式城郭, 소위 倭城에 주목하려고 한다(圖 1). 현재 日本에서는 倭城에 대해 전문

〈圖 1〉倭城所在地(『倭城の研究』創刊號)



학술지 『倭城の研究』의 간행이나 倭城研究 심포지움의 개최 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어 큰 진전을 보고 있는데,[1] 이러한 倭城研究의 근본사료는 日本 九州大學 九州文化研究施設에 소장 중인 『倭城址圖』이다. 이 사료는 해방 전의 유구 상태나 식민지시기 倭城研究의 실태를 고찰하기 위한 중요한 史料이고 식민지시기 倭城研究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로 지금까지 倭城研究에 큰 역할을 하였다.

本稿에서는 새로이 서울大學校에 소장된 『朝鮮城址實測圖』(以下 「本圖」라고 줄임)라는 흥미로운 史料를 소개하고자 한다. 本圖는 舊京城帝國大學 소장이었다가 해방 후 서울大學校 소장이 되었는데 제작년대나 제작자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어 그 제작 의도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本圖에는 韓半島에 존재한 대다수 山城이 그려져 있고 현재 실지조사가 곤란한 북한지역에 있는 山城이나 高麗의 長城 등 중요한 城址도 그려져 있다. 그 畵法은 等高線 위에 城址를 기입한 형식으로 韓半島의 성곽조사에 있어서 최초의 과학적·총체적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귀중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本圖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는 볼 수 없고 학계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금년 國立中央博物館에서 本圖의 原圖라고 추측되는 실측도의 일부가 간행되었지만 도면에 대한 해석은 거의 되어 있지 않다.[2] 따라서 本稿에서는 本圖의 성립 과정을 밝혀 朝鮮總督府의 제작 의도나 「古蹟保護」에 대해서 고찰하고 자 한다.

그리고 『朝鮮城址實測圖』에는 壬辰倭亂 당시 日本軍이 축성한 倭城의 도면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總督府는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형성의 일환으로서 倭城을 중시하고 保護·顯彰하였는데 本圖의 검토를 통해서 그러한 總督府의 倭城調査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또 이러한 작업은 근대사 분야만이 아니라 성곽연구 분야에도 관련된 것이다. 本圖에는 지금까지 식민지시기 倭城研究의 근본사료였던 『倭城址圖』에 수록되지 않은 倭城이 다수 수

(1) 日本에서는 城郭談話會를 중심으로 활발한 倭城研究가 실시되어 있고 1999년에는 日本 九州大學에서 倭城研究 심포지움도 개최되었다. 그 최신의 연구성과는 城郭談話會의 『倭城の研究』(創刊號 · 1997-3號 · 1999), 1999 『倭城: 城郭遺跡が語る朝鮮出兵の實像』, 倭城研究심포지움實行委員會. 參照.

(2) 1998-99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3(1 慶尙南道, 2 慶尙北道, 3 平安道·咸鏡道·黃海道). 國立中央博物館編著.

록되어 있다. 각 倭城에 대한 검토는 아직 분명하지 않는 倭城의 실태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유익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3)

2. 植民地期에 있어서의 倭城研究

1) 『熊川灣略測圖』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日本에 의한 倭城調査는 1910年(明治 43)의 「韓國併合」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韓國併合」 이전부터 倭城 調査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것을 시사하는 사료가 서울大學校 奎章閣 소장의 『熊川灣略測圖』(4)이다(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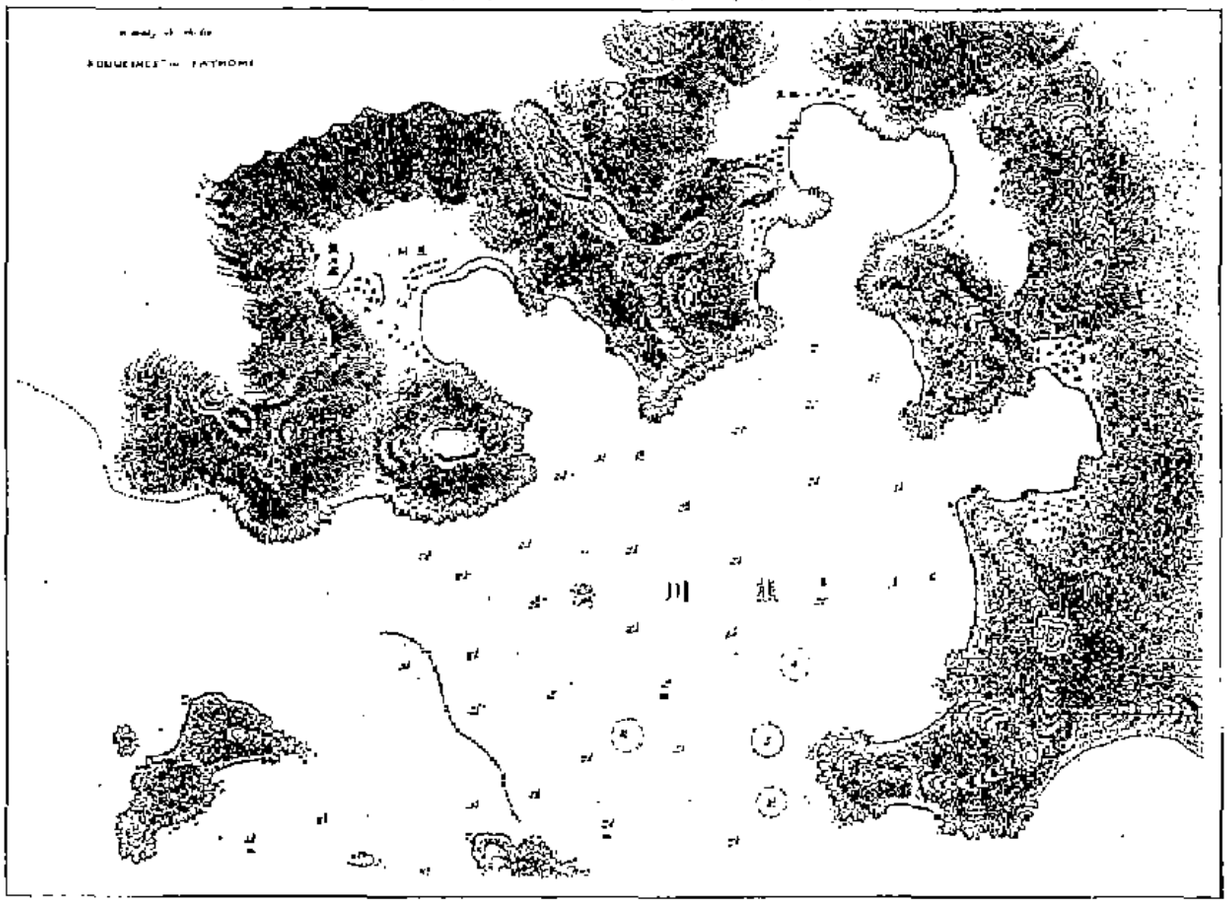
『熊川灣略測圖』에는 실측도 제작의 자세한 경위가 기입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실측도는 1875年(明治 8) 12月 日本 海軍의 孟春艦이 실측한 것이고 측량자는 海軍少尉 森川植(모리카와 히토시) 등이다. 이 해는 8月에 日本軍艦 雲揚號에 의한 江華島 砲擊事件이 있어서 韓日關係가 긴박한 시기였다. 따라서 실측에 즈음하여 조선인의 방해가 매우 심했고 측량작업은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았으며 체재기간은 불과 5일간이었다.

---

(3) 明治 初期~昭和 前期(1945年까지)에 있어서의 城郭研究 全體像에 대해서는 福島克彦・中井均・森山英一・八巻孝夫氏 등의 연구가 있다. 福島克彦, 1993 「戰前の軍事史學と城郭研究についての覺書」, 『中世城郭研究』7號; 中井均, 1993 「本邦築城史編纂委員會と『日本城郭史資料』について: 敗戰前の城郭史研究を理解するために」, 『中世城郭研究』7號; 森山英一, 1994 「舊陸軍における城郭管理の變遷と築城史研究の沿革について」, 『城』146號; 同, 1994 「城郭史研究の歷史」, 『城』149號; 同, 1994-95 「城郭史研究の歷史(1)-(5)」, 『城』149-155號; 八巻孝夫, 1996 「明治から敗戰までの城郭研究の流れについて: 舊陸軍の城郭研究及び縄張研究を中心に」, 『中世城郭研究』10號.

(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熊川灣略測圖』.

〈圖 2〉 熊川灣略測圖 (部分)



이 측량의 목적은 당연히 조선 식민지화의 현실적인 한 수단으로 생각되지만, 그것 말고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熊川倭城의 기재이다. 熊川倭城은 壬辰倭亂 때 日本軍의 全羅道 진출의 거점로, 또 朝鮮 水軍의 공격으로부터 釜山灣을 방위하기 위해서 축성된 倭城이다. 熊川灣에 면하여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日本 水軍의 거점이었다. 이러한 熊川倭城의 특징은 『熊川灣略測圖』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熊川灣略測圖』는 熊川倭城 자체의 실측도는 아니지만 해안에 돌출한 반도의 인공 구축물로 명백히 추정할 수 있는 유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 당시 日本軍이 그 사적(구축물)을 倭城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壬辰倭亂 때 熊川에 日本軍이 축성한 사실은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倭城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2) 朝鮮總督府의 倭城研究

日本에 의한 倭城調査는 1890年代부터 시작되어 「韓日併合」까지 단속적으로 실시되었다.[5] 당시 第五高等中學校 敎師였던 矢津昌永(야쯔 마사나가: 後

陸軍大學 敎授)는 1893年(明治 26)에 벌써 加藤淸正(카토우 키요마사)가 축성한 西生浦倭城을 조사하였고,[6] 1900年(明治 33)과 1901年에는 東京帝國大學의 八木奬三郞(야기 쇼오자부로우)도 倭城을 조사하였다.[7] 또 1909年에는 陸軍參謀本部에 의해서 1/5000의 釜山倭城과 子城臺倭城의 실측도인 「韓國釜山鎭舊城趾之圖」[8]가 제작되었다.

1910年 「韓日併合」 이후 日本은 朝鮮總督府나 軍部를 통해서 본격적인 倭城調査에 착수하였다. 倭城調査의 주체가 된 朝鮮總督府의 壬辰倭亂觀은 초대 總督 寺內正毅(테라우치 마사타케)로 대표된다. 寺內는 韓日併合條約이 체결된 날 밤에 '小早川 加藤 小西가 살아 있으면 오늘의 달을 어떻게 볼까' 라는 詩歌를 지어 壬辰倭亂 당시의 武將들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고 있었다. 加藤淸正(카토우 키요마사)와 小西行長(코니시 유키나가)는 壬辰倭亂의 선봉대 사령관이었고 小早川秀秋(코바야카와 히데아키)는 丁酉再亂 때의 총사령관이었다. 寺內는 豊臣秀吉(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할 수 없었던 朝鮮併合을 자기가 실현하였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을 가진 寺內總督 이하의 總督府는 「古蹟保護」라는 명목 하에 日本의 식민지지배 정당화의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倭城調査를 시작하였다.[9]

總督府의 倭城調査는 東京·京都 등 帝國大學의 교수진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官學에 의한 倭城硏究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官學에 의한 倭城硏究는 東京帝國大學의 八木를 효시로 한다. 八木는 1900年(明治 33)과 1901年 2회에 걸쳐 倭城을 조사하고 수개 소의 倭城을 살펴보았다.[10] 그 후 「韓國併合」 직전에는 加藤淸正의 籠城戰으로 유명한 蔚山倭城의 연구가 활발하였고 1910年에는 幣原坦(시데하라 타이라)가 蔚山倭城의 위치 비정을 하여

(5) 식민지기의 倭城硏究에 대해서는 福島克彦, 1997 「戰前の倭城硏究について」,『倭城の硏究』3號.

(6) 矢津昌永, 1893『朝鮮西伯利紀行』丸善株式會社.

(7) 八木奬三郞, 1901 「韓國に現存する日本の古城蹟」,『歷史地理』3卷7號.

(8)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所藏 「韓國釜山鎭舊城趾之圖」(陸軍參謀本部編『築城史料』所收). 이 측량도는 축척은 1/5000이고 釜山倭城과 子城臺倭城을 측량한 것이다.

(9) 식민지기에 있어서의 倭城硏究에 대하여서는 福島克彦氏의 상세한 연구가 있다. 本稿도 福島氏의 논고에 힘입은 바 크다. 福島克彦, 1997 「戰前の倭城硏究について」,『倭城の硏究』3號.

(10) 八木奬三郞, 1901 「韓國に現存する日本の古城蹟」,『歷史地理』3卷7號.

加藤淸正가 축성한 城址를 蔚山邑城이 아니고 현재의 蔚山倭城(壬亂 당시의 호칭은 島山城)이라고 단정하였다.[11] 1912年(大正 원년)에는 總督府의 古蹟調査委員이 된 谷井濟一(타니이 세이이치)도 蔚山倭城을 조사하고 城址와 石壁의 실측도가 공표되었다.[12]

1916年(大正 5) 朝鮮總督府에 의한 古蹟調査委員會가 발족하고 동위원을 중심으로 한 倭城調査가 본격화되었다. 초기 단계의 總督府의 古蹟調査는 조선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학문적인 뒷받침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히 「任那日本府」의 발견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13] 따라서 「有史前」, 「漢置郡」, 「三韓」, 「伽倻」, 「百濟」, 「新羅」, 「高句麗」, 「高麗」 등의 古墳 등이 주된 조사대상이었고 朝鮮時代의 史蹟은 古代의 史蹟을 조사하는 차에 「便宜」 조사한다는 방침이었다.[14] 그러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倭城은 예외적으로 각 조사위원이 수시로 조사하였다.

倭城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黑板勝美(쿠로이타 카쯔미)이다.[15] 東京帝國大學의 黑板는 古蹟調査事業이 시작된 해의 전년인 1915年 4月 熊川·安骨浦·固城·泗川·順天의 倭城을 조사하였다.[16] 그리고 古蹟調査事業 초년도인 1918年에는 平安南道의 「漢置郡 및 高句麗 遺蹟 및 遺物의 조사를 주로 한다」[17]는 조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역시 平安南道 龍岡郡 池雲面의 「倭城址」를 조사하였다.[18] 다음해인 1917年에도 역시 慶尙南道 金海郡 酒村面의 「倭城」 즉 新畓(農所)倭城, 同郡 駕洛面의 「竹島山城址」 즉 金海竹島倭城 등 「日本關係의 築城」을 조사하였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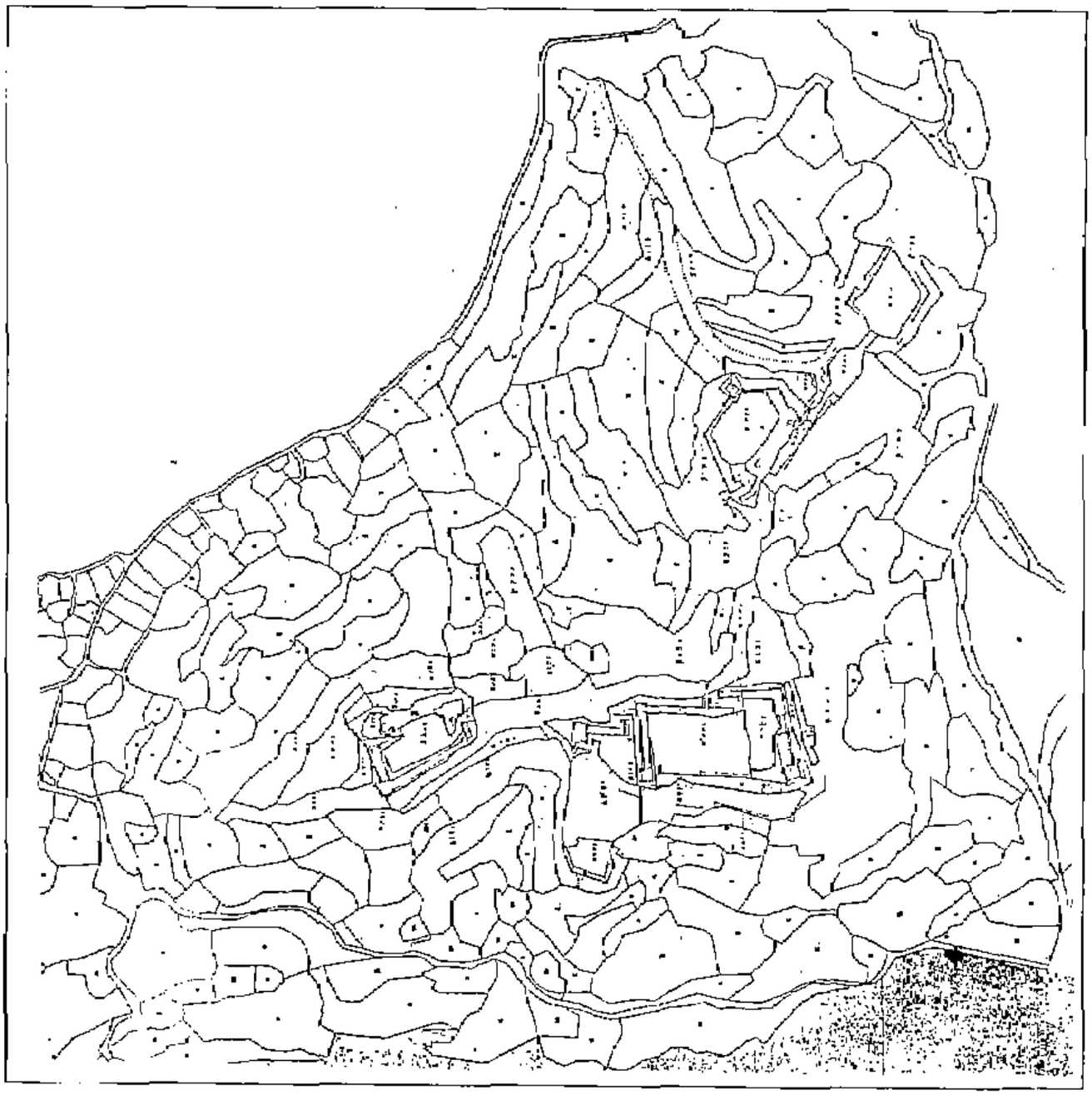
또 黑板와 함께 古蹟調査委員이었던 鳥居龍藏(토리이 류우조오)도 역시

(11) 幣原坦, 1910 「淸正公と島山」, 『歷史地理』16卷1號.
(12) 谷井濟一, 1912 「蔚山に於ける加藤淸正が籠りし城の遺址(上·下)」, 『考古學雜誌』2卷5·7號.
(13) 林直樹, 1999 「今西龍と朝鮮考古學」, 『靑丘學術論集』14集.
(14) 1918 「古蹟調査計畫」,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3面.
(15) 黑板勝美의 古蹟調査에 관한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李成市, 1999 「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韓國文化』23, 參照.
(16) 黑板勝美 「南鮮海岸の調査」(1974 『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所收).
(17) 1918 「大正五年度古蹟調査割說明」, 前揭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13面.
(18) 1918 「大正五年度古蹟調査槪要」, 前揭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15-18面.
(19) 1921 「大正六年度古蹟調査事務槪要」,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2面.

1917年의 조사에서 慶尙南道 金海郡의 「竹島城址」 즉 金海竹島倭城을 조사하였고.[20] 1921年 總督府의 古蹟調査助手 梅原末治(우메하라 수에지)도 蔚山에서 「加藤淸正의 朝鮮出兵 때 籠城으로 유명한 城跡」 즉 蔚山倭城을 「見學」하였다.[21]

그리고 總督府에서는 古蹟調査의 일환으로서 地積圖를 이용한 도면 제작도

〈圖 3〉 安骨浦倭城地籍圖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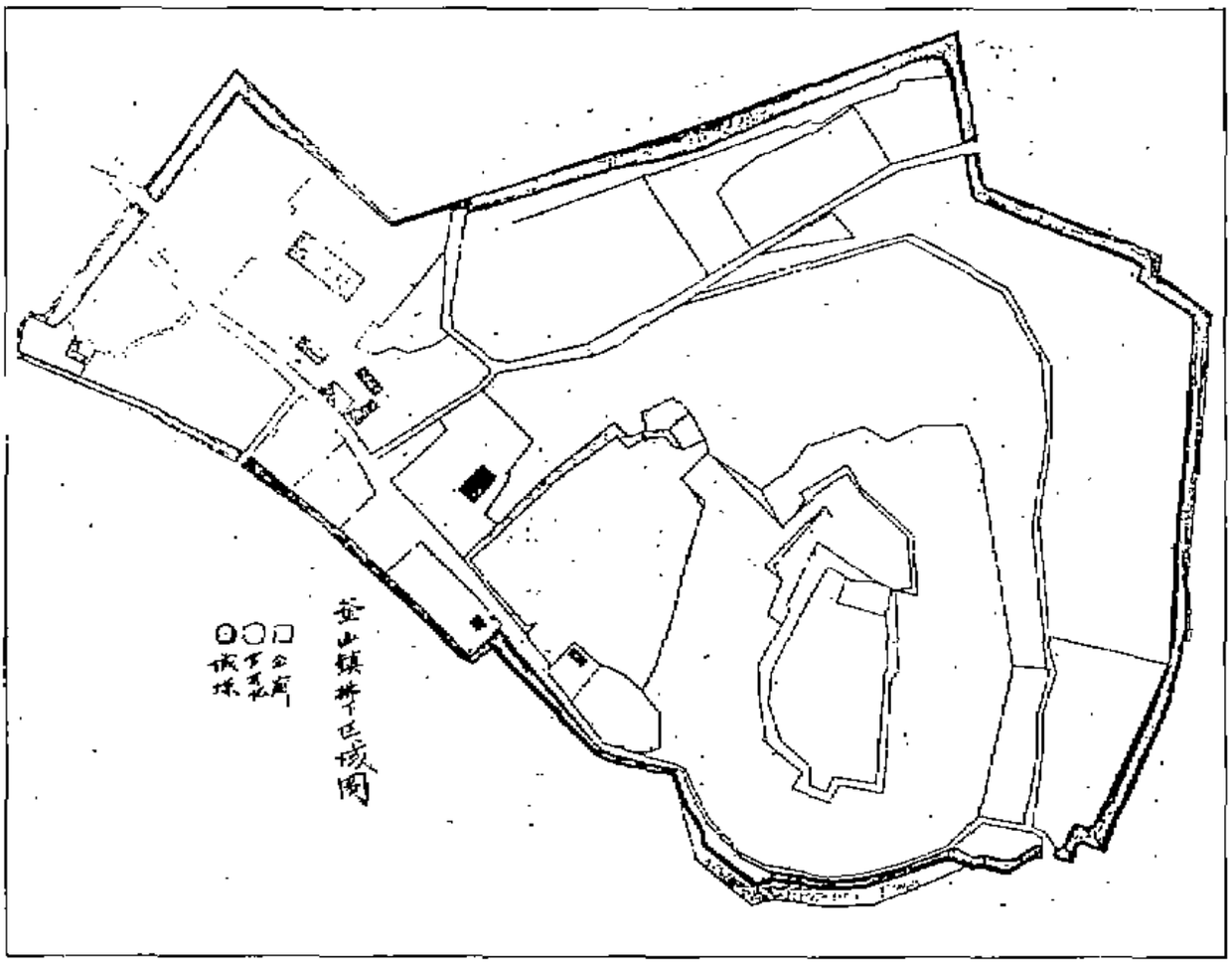


(20) 前揭 「大正六年度古蹟調査事務概要」13面.

(21) 梅原末治, 1969 「日韓併合の期間に行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った一考古學徒の回想錄」, 『朝鮮學報』51輯, 108面.

실시하였다. 그 예로서는 1919年 11月에 제작된 安骨浦倭城의 도면이 있다(圖 3). 이것은 지적도 위에 城壁을 기입하는 방식이고 城壁이나 垓字의 파악은 매우 정확하다.[22] 또 위의 倭城調査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釜山 子城臺倭城의 外郭을 拂下하였을 때 제작된 도면도 있다.[23] 이것은 城址調査가 아니지만 城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어 子城臺倭城 外郭을 고찰할 때 좋은 사료가 된다(圖 4).

〈圖 4〉 子城台倭城圖



3) 軍部의 倭城硏究

한편 官學이나 總督府에 의한 연구와는 별도로 軍部에 의한 倭城硏究도 실시되고 있었다. 軍部의 倭城硏究에서는 伴三千雄(토모 미치오)가 대표적이다.

(22) 前揭『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132面.
(23) 前揭『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51面.

伴는 日本陸軍 參謀本部 戰史編纂委員으로 성곽 연구에 조예가 깊었고 軍部의 倭城硏究 중에서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伴는 1917年(大正 6)과 1921年에 두 차례 倭城調査를 하여 25개소의 倭城을 보고하였다.[24] 伴의 연구에 의해서 倭城의 위치가 비정되었고 그 특징도 밝혀졌다.

하지만 伴의 조사 이전에도 「元鎭海港要塞司令官 吉川少將」, 「元鎭海要港部司令官 東鄕吉太郎」 등 日本海軍 鎭海要港部의 장교급 인물에 의해서 倭城의 조사가 실시되었다.[25] 이와 같은 사실은 상당히 이른 단계부터 軍部가 倭城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軍部의 연구로 주목되는 것은 倭城의 실측도 제작이다. 벌써 「韓國倂合」의 전년인 1909年(明治 42)에 陸軍에 의해서 「韓國釜山鎭舊城趾之圖」[26] 즉 釜山倭城과 子城臺倭城의 자세한 실측도가 제작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圖 5). 이 실측도는 단면도까지 있는 등 軍部의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제작할 수 없는 것이다.[27]

「韓國倂合」 이후 韓半島 남해안은 鎭海를 비롯해서 日本 海軍의 중요한 기지가 되며, 군사기밀 때문에 출입이 엄하게 제한되었다. 따라서 倭城의 답사나 실측조사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昭和期가 되면 그 경향은 현저해져 朝鮮總督府의 朝鮮史編修會 같은 기관조차도 실측조사는 커녕 답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28] 軍部는 總督府 등으로 倭城의 실지조사를 제한하는 한편 군부 독자의 倭城硏究를 실시하여 倭城의 정밀한 실측도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九州大學 소장의 「倭城址圖」가 그것이다(圖 6). 이 사료는 鎭海要港部 근무의 경험이 있고 日本陸軍 築城史編纂委員이었던 原田二郎(하라다 지로우)의 제작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原田는 1927年(昭和 2)부터 1932年(昭和 7)까지 5년간

(24) 伴三千雄, 1920·21 「南鮮に於ける慶長文祿の築城(1)-(8)」, 『歷史地理』36卷 5-6號, 37卷2-6號, 38卷1號; 同, 1924 「南鮮沿岸の築城群」, 『明治聖德記念館紀要』22號; 同, 1925 「再び南鮮に於ける文祿慶長の築城に就いて」, 『歷史地理』46卷33號.

(25) 伴三千雄·前揭論文(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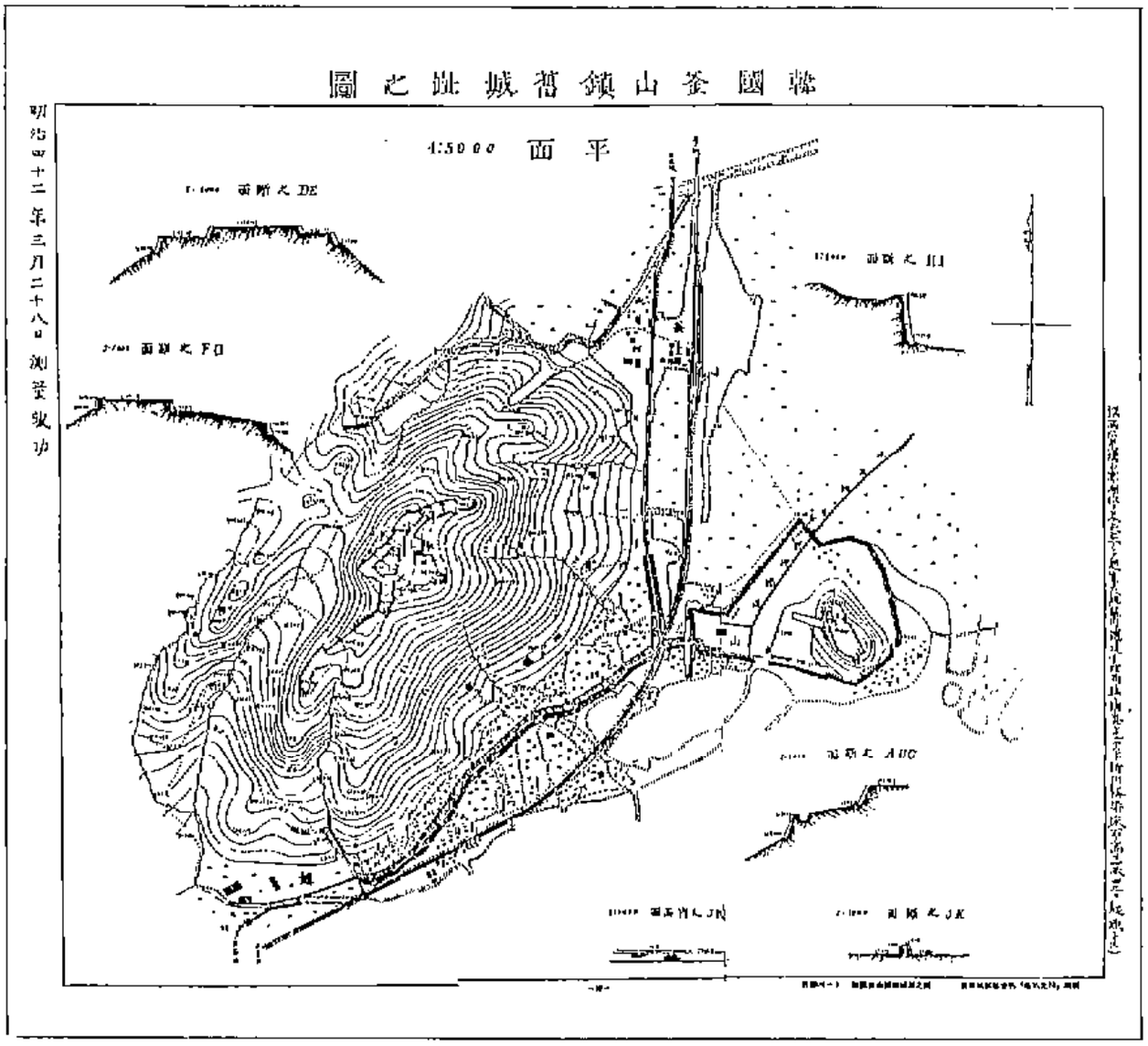
(26) 前揭 「韓國釜山鎭舊城趾之圖」.

(27) 日本陸軍 築城本部는 1908年부터 日本國內의 성곽 실측 조사를 시작하고, 그 연구성과는 1910年에 『築城史料』로 간행되었다.

(28) 長正統, 1985 「倭城址圖」, 『文祿·慶長の役城跡圖集(佐賀縣文化財調査報告書 第81集)』 佐賀縣敎育委員會, 52-53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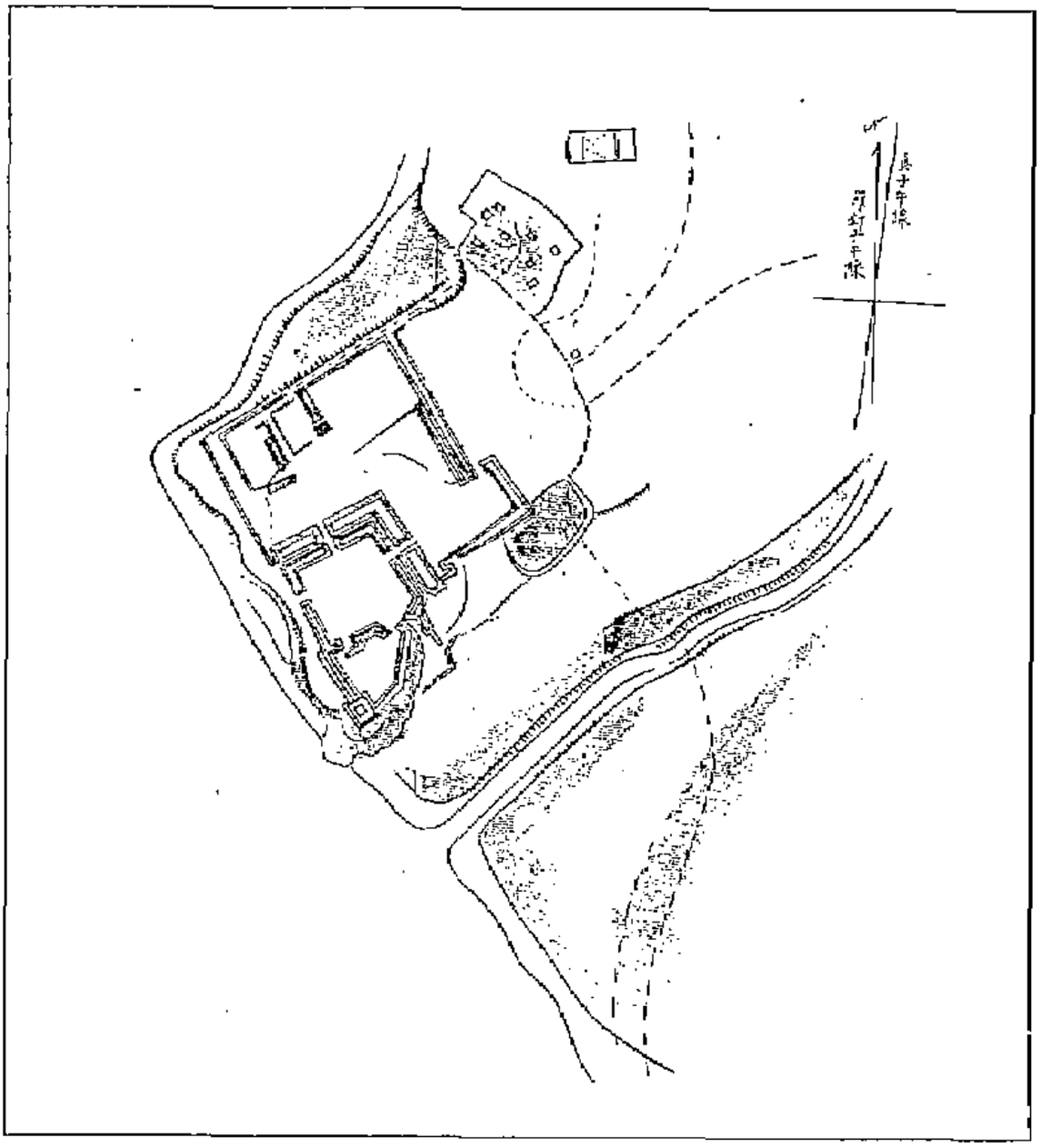
鎭海要港部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29] 「倭城址圖」는 현재의 실측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圖 5〉 韓國釜山鎭舊城趾之圖



(29) 八巻孝夫, 1996「明治から敗戰までの城郭研究の流れについて: 舊陸軍の城郭研究及び縄張り研究を中心に」,『中世城郭研究』10號, 203-205面.

〈圖 6〉『倭城址圖』 倭城洞倭城實測圖
(『文祿・慶長の役城跡圖集』 佐賀縣教育委員會)



또한 軍部에서는 倭城의 실측 조사뿐만 아니라 倭城의 顯彰도 실시하였다. 小西行長가 劉綎의 明軍을 격퇴한 順天倭城에는 당시 日本陸軍 中將이고 朝鮮軍司令官이었던 林銑十郎(하야시 센주우로우)[30]가 自然塊石에 「小西行長之城址」라고 새긴 顯彰碑가 세워져 있었다.[31]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泗川倭

(30) 林銑十郎(하야시 센주우로우: 1876-1943). 昭和 前期의 陸軍軍人. 최종 계급은 大將. 1910年 韓國駐屯軍司令部 勤務, 1930年 朝鮮軍司令官, 1934年 陸軍大臣, 1937年 首相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과의 관계가 깊은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31) 許善道. 1991 「順天(昇州) 倭橋城(新城里城)考: 名稱과 解說의 잘못을 바로잡음」, 『震檀學報』71・72, 79面.

城에서도 장교급 인물이 城址에 건립된 「島津義弘戰勝碑」를 참배하러 갔다고 한다.[32] 그리고 海軍中將이고 鎭海要塞司令官(1916~18年)이었던 東鄕吉太郎(토우고우 요시타로우)는 『泗川新寨戰捷之偉蹟』[33]을 저술해서 泗川의 전승을 현창하였다. 그 외에도 軍部에서는 壬辰倭亂에 관한 저술이나 논고를 많이 발표하였는데 그런 軍部의 군사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저술은 국민 계몽에 큰 설득력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4) 民間의 倭城硏究

總督府나 軍部 이외에 민간에서도 倭城硏究가 활발하게 실시되어 『蔚山城趾考』,[34] 『釜山城址』[35] 등이 간행되었다. 이런 책들은 倭城의 사진이나 위치·문헌 등을 게재하여 민간에 대한 계몽의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蔚山城趾考』는 蔚山倭城의 전투에 관한 문헌을 많이 수집·수록하고 유명한 加藤淸正의 蔚山籠城戰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蔚山倭城의 1/6000의 「蔚山城址實測圖」[36]를 게재하고 있다. 또 이 실측도의 原圖가 「蔚山公立普通學校」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기술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학교 교육에서 이 실측도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데 倭城이 식민지지배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고 있었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蔚山倭城에 대해서는 「韓國倂合」 5년 후인 1915年(大正 4)에 城址保存會가 설립되어 있었다. 蔚山城址會의 설립 의도는 「蔚山城址의 史實을 조사하고 城址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적당한 보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1917年에는 蔚山倭城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정비사업

(32) 李章熙·成大慶·申解淳, 1989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調査」, 『軍史』19號, 178-185面.
(33) 東鄕吉太郎, 1918 『泗川新寨戰捷之偉蹟』 薩摩史料調査會. 未見.
(34) 小宮謙藏, 1929 『蔚山城趾考』 蔚山城趾保存會.
(35) 及川民次郎, 1933 『釜山城址』 釜山敎育會.
(36) 이 실측도의 축척은 후술한 總督府 農商工部 山林課에 의한 『朝鮮城址實測圖』의 蔚山倭城實測圖와 대략 비슷해서 山林課의 실측도를 참고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에서는 蔚山倭城을 기부나 매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공유지화하고 櫻樹나 松樹를 식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게다가 정비계획 종료 후에는 城址의 그림엽서 발행이나 史籍編纂도 계획하고 있었다.[37] 그 후 蔚山倭城은, 加藤淸正 등이 「心血을 기울인 城址」의 「古蹟保存」을 목적으로 慶尙南道 蔚山面이 주체가 되어 1927年(昭和 2) 9月부터 城址의 대대적인 공원화가 실시되어 다음해 4月에는 15,000坪의 광대한 蔚山公園(현재의 鶴城公園)이 완성되었다.[38] 倭城 顯彰이 차차 본격화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5) 華族의 倭城顯彰

또 民間의 倭城保護·顯彰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壬辰倭亂에 관계한 大名들의 子孫(明治 이후의 華族)에 의한 倭城 顯彰도 있었다. 그들은 倭城을 매수해서 보호하고 선조의 「功績」을 현창하였다.

島津義弘(시마즈 요시히로)의 籠城戰으로 유명한 泗川倭城에서도 城址保存會가 결성되어 1926年(昭和 1)경에 島津 公爵家가 先祖 顯彰을 위해서 城址를 매수하고 鹿兒島(舊薩摩藩: 島津家의 근거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神社가 건립되고 櫻樹가 식수되었다고 한다.[39] 또한 島津軍이 明軍을 섬멸시켰던 泗川戰鬪를 기념한 「島津義弘戰勝碑」가 城址에 세워져 때때로 日本軍 장교들도 참배하였다고 한다.[40] 그 이외에 島津 公爵家에서는 『島津氏元寇討伐紀事·島津氏朝鮮武功紀事』[41] 등 선조의 「功績」을 현창한 책도 간행하였다.

그리고 伊達政宗(다테 마사무네)의 축성설이 있는 梁山倭城도 1926年 總督 齋藤實(사이토우 마코토)가 힘을 써서 城址가 伊達 伯爵家의 소유가 되었다.[42]

---

(37) 1918 「慶州及金海に於ける古蹟保存事業竝蔚山城址保存會狀況」, 『朝鮮彙報』大正7年1月號, 126-132面.

(38) 1928 「蔚山城址を中心とする大公園」, 『朝鮮』156號, 139-140面.

(39) 福島克彦·前揭論文(1998), 125面.

(40) 李章熙·成大慶·申解淳·前揭論文(1989), 178-185面.

(41) 1904 『島津氏元寇討伐紀事·島津氏朝鮮武功紀事』 島津公爵家. 未見.

(42) 加藤灌覺, 1936 「伊達城址について」, 『仙臺鄕土硏究』6卷5號, 14-15面. 齋藤實의 家門은 伊達氏의 臣下이었던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朝鮮의 最高權力者인 總督이 직접 관여해서 역사를 왜곡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梁山倭城의 伊達政宗 축성설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고 국민에게 인기가 있었던 伊達政宗와 관련시켜서 倭城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한 역사왜곡이었다.(43) 倭城이 島津 公爵家나 伊達 伯爵家의 소유가 됨으로써 倭城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다.

3. 朝鮮總督府의 古蹟指定

이러한 연구가 진전되는 중에 朝鮮總督府는 1933年(昭和 8)에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을 제정하면서부터 1935年에 蔚山倭城(蔚山鶴城: 史蹟指定名稱, 以下同)·釜山子城臺倭城(釜山鎭子城臺)을 古蹟으로 지정한 것을 비롯해서 1936年에 釜山倭城(釜山日本城)·馬山倭城(馬山日本城), 1938年에 順天倭城(順天新城里城)·泗川倭城(泗川船津里城)·金海竹島倭城(金海竹島城)·機張倭城(機張竹城里倭城)·安骨浦倭城(熊川安骨里城)·西生浦倭城(西生浦城), 1939年에 梁山倭城(梁山甑山城) 등 합계 11개소의 倭城을 古蹟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44) 總督府의 倭城 보호는 秀吉의 「朝鮮征伐」의 「偉業」을 현창해서 일반인을 계몽하고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형성의 일환이었다. 이런 總督府의 의도는 總督府의 기관지인 『朝鮮』 등에 倭城이나 壬辰倭亂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昭和期 이후에는 軍部의 기밀문제로 總督府의 倭城調査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倭城硏究는 軍部가 중심이 되었다. 앞서 말한 九州大學 소장의 「倭城址圖」는 軍部에 의한 倭城硏究의 집대성이다. 軍部는 전문적인 지식과 倭城 조사를 학술적 근거로 해서 壬辰倭亂이나 古代의 있어서의 「神功皇后의 三韓征伐」의 성과를 선전하고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를 기도하였다.

軍部의 전문적인 군사지식에 의한 倭城調査와 總督府나 官學의 학문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倭城硏究는 상호 보완되면서 식민지 지배의 이데올로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

(43) 太田秀春, 2000 「文祿の役における伊達政宗の動向と倭城普請」, 『歷史』94輯.
(44) 1940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一覽』, 朝鮮總督府.

4. 『朝鮮城址實測圖』에 대하여

1) 『朝鮮城址實測圖』의 體裁

여기서 朝鮮總督府의 倭城硏究에서 귀중한 자료가 된 『朝鮮城址實測圖』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45] 本圖는 현재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本圖에는 약 800개 소의 城郭 측량도가 수록되어 있어 韓半島 성곽연구에 극히 중요한 史料이지만 지금까지 그 존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제작년대 등에 대해서도 전혀 고찰되지 않았다.

本圖는 모두 13卷(京畿道·忠淸南道·忠淸北道·全羅南道·全羅北道·慶尙南道·慶尙北道·黃海道·平安南道·平安北道·江原道·咸鏡南道·咸鏡北道)으로 되어 있다. 京城帝國大學의 舊藏書이고 同大學 圖書館에 수장되었을 때 붙은 整理番號와 藏書印이 있다. 이 번호는 京畿道의 79469番부터 咸鏡北道의 79508番까지 이고 이 번호가 연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本圖가 일괄하여 京城帝大에 수장된 것을 알 수 있다. 京城帝國大學의 구장서를 조사하면 70000番臺의 장서는 1928年경에 수집된 것이 많다. 따라서 本圖는 1928年경 일괄하여 京城帝國大學에 수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本圖의 體裁는 세로 약 60cm, 가로 약 40cm의 茶色의 두꺼운 表紙와 背表紙로 제본되어 있고 그 안에 같은 크기의 얇은 종이를 가로로 사용한 도면이 철해져 있다. 도면은 各道마다 철해져 있는데 咸鏡北道·咸鏡南道·平安北道·平安南道·黃海道·京畿道·江原道·慶尙北道·慶尙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 합계 13卷이다. 表紙에는 좌측 上部에 「朝鮮城址實測圖」라는 기입이 있고 그 아래에는 「慶尙南道」 등 道名이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內表紙에는 「城址實測圖」라고 기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本圖의 原題는 「城址實測圖」이고 「朝鮮」이라는 글자는 나중에 붙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本圖의 書式은 우측 上部에 세로로 所在地(道·郡·面·里)를 기입하고 그 아래에는 괄호 내에 「城址」 「山城址」 「古墳」 「寺址」라는 기입이 있다. 축척이

(45) 서울大學校所藏 『朝鮮城址實測圖』.

있는 것이 많지만 없는 것도 있다. 축척은 1/6000이 많지만 1/3000, 1/1200 등도 있다. 소재지 左側에 「○○國有林」라는 國有林名이 기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地名(주로 面이나 里)에 「國有林」을 붙였던 것이 대부분이지만 城址 같은 경우에는 「○○城國有林」이라고 城名을 기입하고 있는 것이 많다. 方位는 거의 기입되지 않지만 대략 위쪽이 북쪽이다. 左側 下部에는 도면마다 연속한 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한 매에 하나의 史蹟을 조사하고 있지만 長城이나 羅城 같은 광대한 史蹟은 여러 매에 분할하여 제작되어 있다. 城址나 史蹟 주변의 等高線 위에 城址의 城壁線을 연필로 그리고 있다. 石壁은 凹凸線이나 타원형의 작은 원을 연결한 선으로 그리고 있다. 土壘는 實線이나 「게바線(舊日本軍 등에서 사용한 製圖法이고 지도에서 고저나 기복을 나타내는 짧은 선의 집합)」으로 그린 것이 많다. 일부의 도면은 河川을 青色, 道路나 城壁을 赤色으로 착색한 것도 있다.

또 城址나 주변의 토지소유자를 명기하고 있는 것도 本圖의 특징이다. 一筆 다다 소유자를 기입하고 있고 墓地, 田地, 畓地, 荒蕪地 등 현상도 기호로 기입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집락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집락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집락까지의 거리와 방위가 기입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주변의 道路나 河川이 그려져 있다.

「城址實測圖」라는 제명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수록된 도면은 「城址」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술처럼 「古墳」, 「寺址」 등도 있다. 城址는 山城이나 長城이 대부분이고 서울이나 平壤 같은 邑城은 거의 볼 수 없다. 「城址實測圖」라고 하지만 그 실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國有林」의 조사도이고 「實測」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메모 정도의 도면도 있다. 圖中의 필적으로 보아 복수의 조사원에 의해서 조사된 것은 확실하고, 후술하겠지만 朝鮮總督府의 조직적인 조사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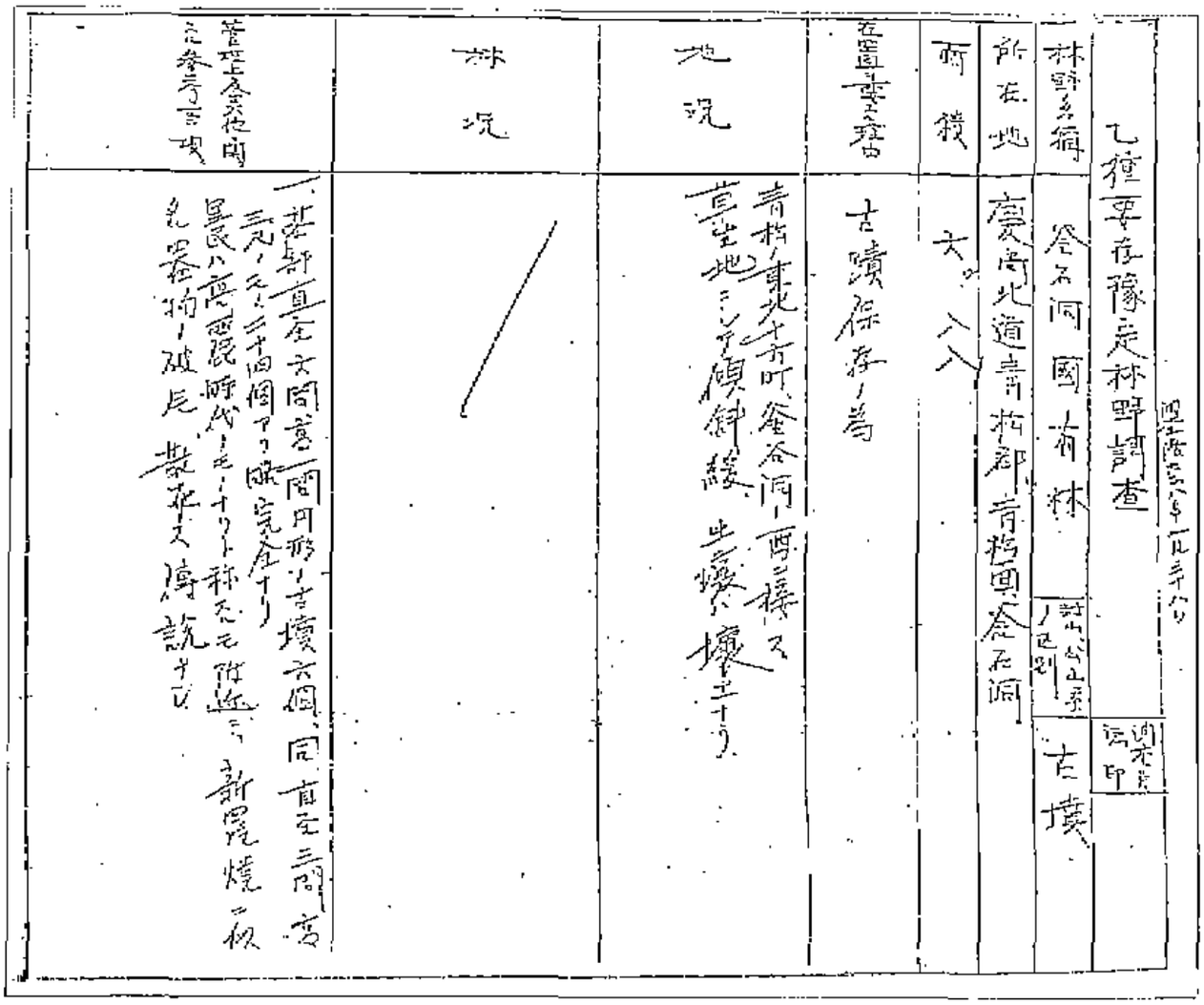
2) 『朝鮮城址實測圖』의 製作年代・製作主體・製作目的

本圖의 제작년대와 주체를 고찰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

은 慶尙北道 靑松郡 靑松面 「釜谷洞國有林(古墳)」[46]과 同郡 巴川面 「古葬嶝國有林(城址)」[47]의 실측도와 添附文書이다.

이 添附文書는 「乙種要存豫定林野調査」라는 제목으로, 항목은 「調査員」, 「林野名稱」, 「封山, 公山等의 區別」, 「所在地」, 「面積」, 「存地를 要하는 理由」, 「地況」, 「林況」, 「管理上 및 其他에 관한 參考事項」 등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釜谷洞國有林(古墳)」 添附文書에는 「調査濟 大正八(1919)年二月二十八日」, 「古葬嶝國有林(城址)」 添附文書에는 「調査濟 大正八年三月十一日」이라는 調査日의 기재되어 있는 점이다(圖 7). 그리고 이 「釜谷洞國有林(古墳)」의 도면에는

〈圖 7〉 「釜石洞國有林」 添付文書



(46) 「釜谷洞國有林(古墳)」 添附文書(『朝鮮城址實測圖』 慶尙北道 所收).
(47) 「古葬嶝國有林(城址)」 添附文書(『朝鮮城址實測圖』 慶尙北道 所收).

「調査員技手 築瀨末太郎(야나세 수에타로우)」라는 기재도 있다. 築瀨는 朝鮮總督府의 직원이고 본 조사가 실시된 1919年(大正 8) 당시는 農商工部 山林課에 소속한 技手(八等官)이었다.(48)

또한 山林課의 조사이었던 것을 명백하게 하는 증거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本圖에 기입된 「乙」이라는 글자나 「第一種不要存林野」라는 표기이다. 이것은 史蹟이 존재한 「國有林」의 종류이다. 이 「國有林」의 종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朝鮮總督府의 土地調査事業, 특히 山林政策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總督府의 山林政策에 대해서는 선학의 많은 연구축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本圖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49)

日本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이 있어서의 山林政策은 統監府나 總督府가 오래 전부터 주목한 중요 정책이었다. 1911年(明治 44) 8月 朝鮮總督府는 「森林令」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산림정책에 착수하였다. 「森林令」은 크게 분류하면 일반 임야에 대한 警察規定, 森林特別刑罰規定, 「國有林」에 대한 第三者의 利用規定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本圖와 관련된 부분은 최후의 「國有林」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國有林」는 1908年에 시행된 「森林法」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다. 朝鮮時代의 산림은 「封山」「禁山」 등 朝鮮王朝의 官有林, 權門貴族이 소유한 私有林, 「無主公山(농민들의 共同利用地)」로 대별할 수 있고 특히 「無主公山」이 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森林法」은 강압적으로 「國有林」을 창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소유자의 신고가 없었던 임야 특히 농민들의 공동소유지이었던 「無主公山」을 강제적으로 「國有林」에 편입하여 「韓國併合」까지 830萬町步라는 광대한 「國有林」을 창출시켰다.(50)

---

(48) 1919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府, 28面.

(49) 朝鮮總督府의 山林政策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本稿는 특히 權寧旭·姜英心·裵在洙氏의 논고에 힘입은 바 크다. 權寧旭, 1965 「朝鮮における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的山林政策」, 『歷史學硏究』297號; 姜英心, 1982 「日帝下의 "朝鮮林野調査事業"에 관한 硏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裵在洙, 1997 「日帝의 朝鮮 山林政策에 관한 硏究: 國有林政策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山林資源學科 博士學位論文.

(50) 權寧旭·前揭論文(1965), 4-5面; 姜英心·前揭論文(1982), 1-42面; 裵在洙·前揭論文(1997), 34-51面.

이런 「國有林」에 대해서 「韓國併合」 직후의 1911年(明治 44)부터 1924年(大正 13)까지 「國有林區分調査」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광대한 면적의 「國有林」을 「國有地」로서 보존할 「要存豫定林野」와 보존하지 않을 「不要存林野」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要存豫定林野」의 조건은 軍事·學術·保安으로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곳, 封山 등 특별한 곳, 經營上 편리한 곳 등이었다. 보존할 「國有林」은 그 중요도에 따라 「甲種」과 「乙種」의 2種으로 분류되었다. 「不要存林野」는 전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이고 墓地와 寺院,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이 「國有林」에 편입되어 버렸던 임야를 「第二種不要存林野」로 하고 그 이외를 「第一種不要存林野」로 하였다. 本圖에 기입된 「乙」이라는 글자는 바로 「乙種要存豫定林」이고 「第一種不要存林野」라는 기입도 「國有林區分調査」 때 「不要存」으로 판단된 임야라고 생각한다. 그 후 귀속이 애매하였던 임야의 경계와 소유자를 확정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한 「林野調査事業」이 1917年(大正 6)부터 24年(同 13)까지 실시되었다.(51)

따라서 本圖의 제작주체는 總督府 山林課이고 제작년대는 「國有林區分調査」가 실시된 1911年~24年으로 추정된다. 本圖의 성지주변 상황이 이 연대에 합치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제작목적은 「學術上 특히 存置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個所」인 「古蹟」을 포함하는 「國有林」의 보존이었다. 이런 도면의 특징과 상태는 지금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國有林境界圖」와 거의 똑같다.(52) 따라서 本圖는 「國有林境界圖」를 복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술한 실측도의 添附文書는 당시 「第一種不要存林野」로 지정된 「國有林」에 첨부된 문서이다. 이 문서가 첨부된 「釜谷洞國有林」 「古葬嶝國有林」 등의 「國有林」 내에는 「城址」나 「古墳」 등의 古蹟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添附文書는 그 「國有林」을 「不要存林野」가 아니고 「乙種要存林野野」로 「存置」하도록 의견한 것이고, 그 「存置를 要하는 理由」는 모두 「古蹟保存의 爲」이었다. 同文書의 「管理上 및 其他에 관한 參考事項」에서는 그 史蹟에 관한

(51) 權寧旭·前揭論文(1965), 7-9面; 姜英心·前揭論文(1982), 43-77面; 裵在洙·前揭論文(1997), 101-110面.

(52) 前揭『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3.

내력이나 현상 등이 기입되어 있다. 예컨대 「釜谷洞國有林」의 古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基部直徑六間 高一間 圓形의 古墳 六個 同直徑三間 高三尺의 것 二四個 있다. 대략 완전하다. 里民은 高麗時代의 것이라고 칭하지만 부근에는 新羅燒와 비슷한 器物의 破片이 산재한다. 傳說은 없다」.[53]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에서는 史蹟의 실태 파악과 역사적 유래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게다가 주민간에서 高麗時代 古墳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원은 「新羅燒」와 비슷한 陶器片이 산재한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사원들은 農商工部 山林課 技手이었지만 단순한 실측원이 아니고 고고학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山林課에서는 실측도 제작과 동시에 「多大한 日子와 費用」을 들여서 13卷의 『古蹟臺帳』을 제작하고 있었다.[54] 사실, 이 山林課의 城址調査는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 같고 뒤에 실시된 古蹟調査委員會의 古蹟調査事業 때에도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55]

5. 『朝鮮城址實測圖』에 보이는 倭城

倭城은 해안에 인접한 丘陵 또는 山地를 선택해서 축성된 것으로 극히 군사적인 요소가 강한 성곽이었다. 해안에 위치하여 港灣確保라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山頂에서 山麓까지 장대한 石壁이 남아 있는 것은 倭城의 최대의 특징이고 『朝鮮城址實測圖』의 倭城實測圖에도 이런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다.

倭城의 실측도로서는 日本 九州大學 소장인 『倭城址圖』가 유명하다. 이 『倭城址圖』는 1927年(昭和 2)~32年(昭和 7)에 제작되었다고 추측된다.[56] 종래에는 1909年(明治 42)에 제작된 「韓國釜山鎭舊城址之圖」[57]와 1929年(昭和 4)

(53) 前揭 「釜谷洞國有林(古墳)」添附文書.
(54)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朝鮮總督府, 凡例.
(55) 馬場是一郎・小田敬吉, 1927 「梁山夫婦塚と其の遺物」, 『古蹟調査特別報告』第5册, 朝鮮總督府, 16-17面.
(56) 八卷孝夫・前揭論文(1996).
(57) 前揭 「韓國釜山鎭舊城址之圖」.

에 간행된 「蔚山城址實測圖」[58]를 제외하고 그 『倭城址圖』가 植民地期 倭城硏究의 집대성이고 最古의 도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朝鮮城址實測圖』가 제작된 시기는 1917年(大正 6)~24年(大正 13)으로 『倭城址圖』보다 제작 시기가 앞선다. 따라서 『倭城址圖』와 중복되는 順天·梁山·臨浪浦(林浪浦)의 각 倭城은『朝鮮城址實測圖』가 最古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고, 『倭城址圖』에 수록되지 않는 蔚山·西生浦·長門浦·松鎭浦·永登浦·熊川·新畓(農所)·馬沙·馬山·望津의 각 倭城도 『朝鮮城址實測圖』가 最古의 것으로 식민지기에 있어서의 유일하고도 귀중한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朝鮮城址實測圖』는 國立中央博物館이 소장하지 않는 熊川·長門浦·松眞浦·永登浦 각 倭城의 도면도 수록하고 있다.

다만 『朝鮮城址實測圖』는 제작 목적이 「國有林」 내의 史蹟調査이었고 『倭城址圖』 같은 軍部에 의한 要塞硏究的인 城郭本位의 실측조사는 아니었다. 따라서 垓字나 雉城 등의 표기가 거의 없고 성곽 유구의 파악은 『倭城址圖』보다 뒤떨어지는 것이고 현재의 성곽연구의 수준으로 보면 약간 치졸한 느낌이 드는 도면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은 本圖의 제작목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결코 本圖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런 本圖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나서 本圖가 제작된 당시의 倭城의 모습을 고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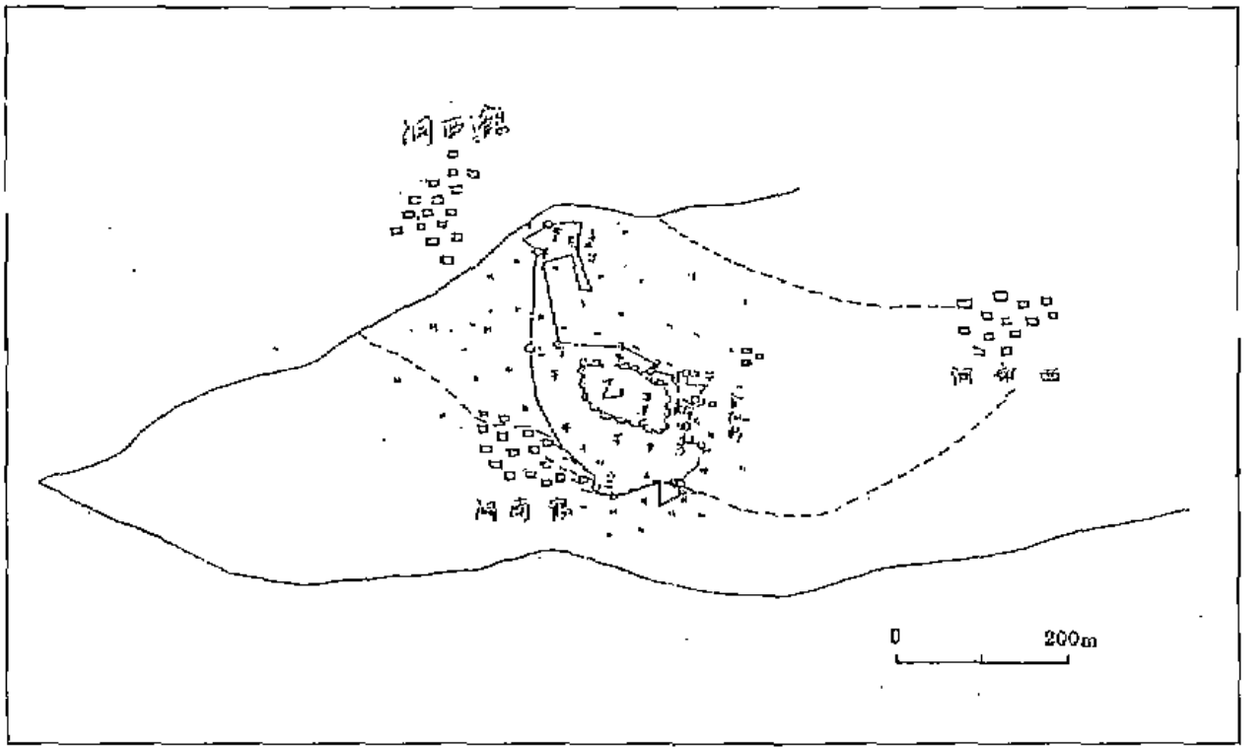
1) 蔚山倭城

蔚山倭城은 1597年(慶長 2) 丁酉再亂 때 東部戰線 최전선의 거점으로 淺野幸長·毛利秀元 등이 축성을 담당했고 加藤淸正·淺野幸長 등이 수비하였다. 蔚山籠城戰으로 굉장히 유명한 城址이다.

蔚山倭城의 도면은 「鶴城山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尙南道 蔚山郡 上部面」,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6000이다(圖 8). 또 조사 일시는 1913年 12月 6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海老原侃이다.[59]

(58) 前揭 『蔚山城址考』 所收.
(59)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75面.

〈圖 8〉 蔚山倭城圖 (部分)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甑城이라고 칭한다. 蔚山邑의 東 凡半里의 丘上에 있다. 加藤淸正의 축성이라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60)

城址의 主郭(本丸)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記入되어 있다. 城壁線는 石壁을 나타내는 凹凸線으로 그려져 있지만 副郭(二の丸) 이하는 그려지지 않았다. 단 副郭 이하의 城壁線은 「國有林」 지정 범위와 대략 일치한다. 이 사실은 石築이 아니었던 副郭 이하를 포함하는 丘陵地 전체가 城址로서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主郭과 副郭은 雜木地의 기호가 있고 그 주위는 밭의 기호가 있다. 北西의 郭이나 北側의 郭, 南側의 鶴南洞 인접지 부근에는 墳丘 기호가 있고 그 당시에는 일부 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主郭 西側에는 「紛」이라는 글자가 보여 「國有林」에 境界紛爭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蔚山倭城은 蔚山籠城戰 때의 기록에 보이는 바에 의하면 장대한 外郭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도면에 外郭이 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는 外郭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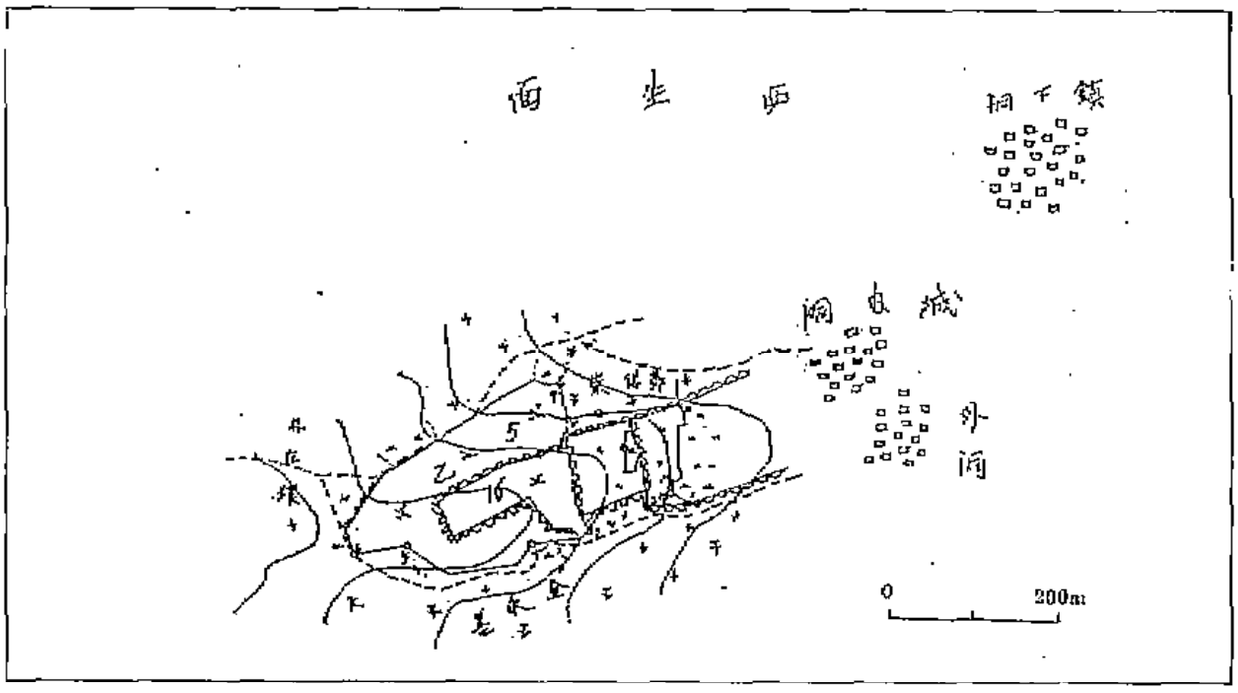
(60)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06面.

2) 西生浦倭城

西生浦倭城은 壬辰倭亂 때 東部戰線 최대 거점으로 축성과 수비를 담당한 大名은 加藤清正이다. 丁酉再亂 때는 淺野幸長(아사노 유키나가) 등이 수비하며 성곽을 수축하였다. 그 규모는 倭城 중 최대급이고 山頂에서 山麓까지 장대한 石築이 완전히 남아 있다.

西生浦倭城의 도면은 「甑城山區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尙南道 蔚山郡 西生面」,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6000이다(圖 9). 또 조사 일시는 1914年 2月 12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海老原侃이다.[61]

〈圖 9〉 西生浦倭城圖 (部分)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甑城이라고 칭한다. 西生浦의 西南에 있다. 加藤清正가 축성한 石城이고 주위는 凡二千間」이라고 기술되어 있다.[62]

城址의 主郭 北側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다. 城壁線은 石壁을 나타내는 凹凸線으로 그려져 있다. 城址 주변의 等高線도 기입되어 있다. 山腹의 郭에는 田地의 기호가 있어 당시 城址가

(61)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72面.
(62) 前揭 「朝鮮貴物古蹟調査資料」, 307面.

밭으로 開墾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林浪浦倭城(臨浪浦倭城)

林浪浦倭城은 西生浦倭城과 機張倭城(釜山廣域市 機張郡 竹城里)의 중간에 위치한 倭城으로 壬辰倭亂 때 毛利吉成(모우리 요시나리) 등이 축성해서 수비하였다.

林浪浦倭城의 도면은 「臨浪浦城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尙南道 東萊郡 長安面 林浪里」, 史蹟의 종류는 「山城址」, 축척은 1/6000이다(圖 10). 또 조사 일시는 1916年 5月 30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太田耕作·小副川生吉이다.[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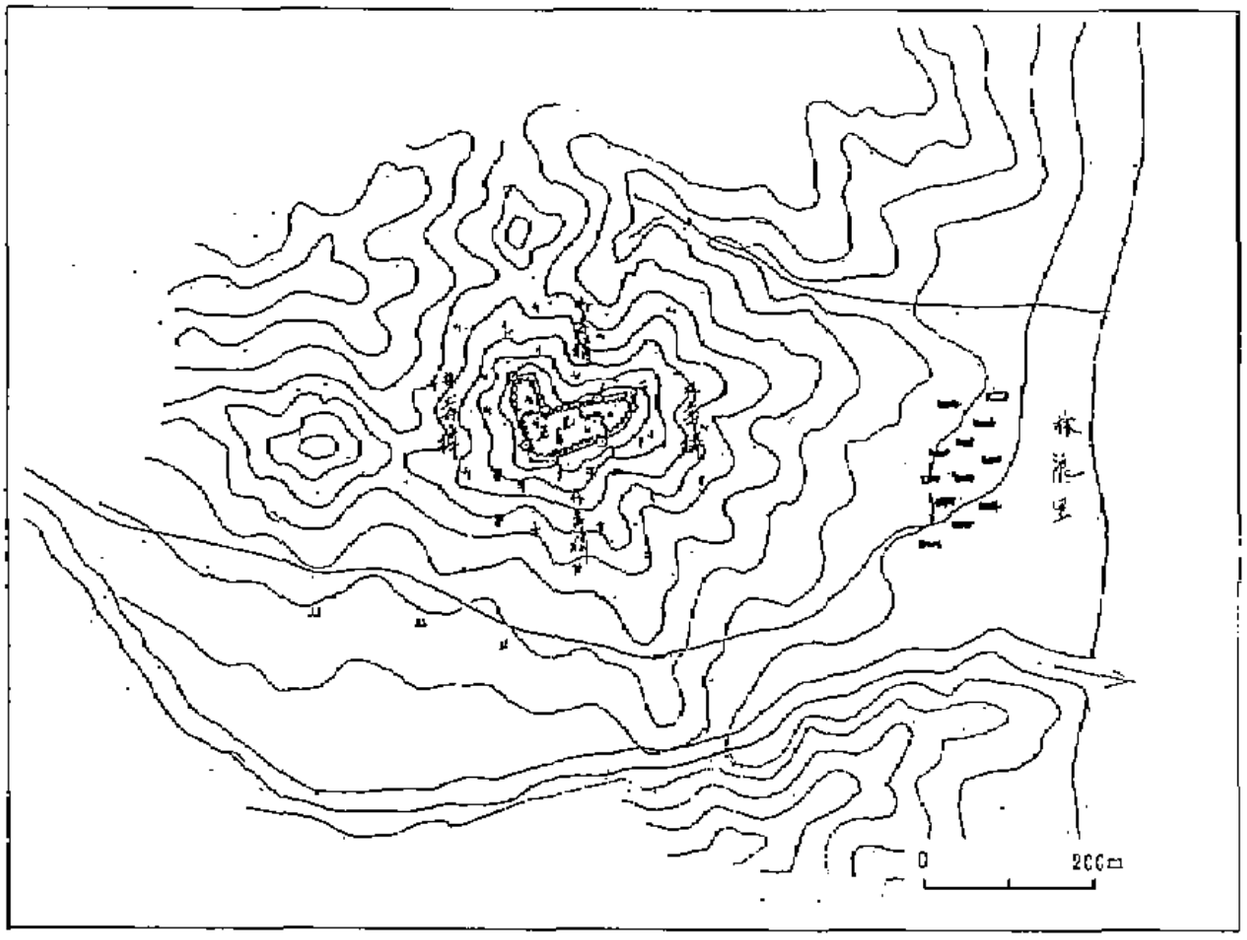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機張에서 東北方 凡二里 해안에 면한 小山 위에 있다. 주위 凡二百餘間의 石壘이고 곳곳이 붕괴되어 있다. 文祿慶長役 때 日本軍의 축성한 것이라고 전한다」고 기술되어 있다.[64]

이 도면에는 等高線이 城址 주변뿐만 아니라 林浪里 전역에 그려 있는 점은 그 밖의 도면과 다르다. 城址의 主郭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다. 城壁線는 石壁을 나타내는 凹凸線으로 그려져 있다.

林浪浦倭城은 산정의 主郭과 산록의 居館部로 구성된 성곽이다. 本城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벌써 1917年(大正 6) 이전에 總督府 中樞院이나 鎭海灣要塞 司令官 古川 少將 등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고, 산정의 主郭과 산록의 居館部를 확인하고 있었다.[65] 그러나 本圖에는 居館部가 보이지 않고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도 居館部의 기술이 없어서 그 당시 山林課에서는 居館部를 城址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居館部를 확인한 軍部의 조사는 일반에 공표하지 않고 비밀리에 실시된 것으로 추측된다.

(63)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43面.
(64)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10面.
(65) 伴三千雄·前揭論文(1920·21).

〈圖 10〉 林浪浦 (臨浪浦) 倭城圖 (部分)



4) 梁山倭城

梁山倭城은 丁酉再亂 때 1597年(慶長 2) 11月경 축성한 倭城인데, 毛利秀元(모우리 히데모토)·小早川秀秋 등이 축성을 담당했고 黑田長政(쿠로다 나가마사)가 수비하였다. 내륙부 진출의 거점으로 洛東江 하안에 축성되었지만 豊臣秀吉의 지시에 따라 1598年 3月 梁山駐屯 日本軍은 釜山方面에 철퇴해서 梁山倭城을 방기하였다.

梁山倭城의 도면은 「曾山城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尙南道 梁山郡 上西面 曾山里」, 史蹟의 종류는 「山城址」, 축척은 1/6000이다 (圖 11). 또 조사 일시는 1916年 5月 30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太田耕作·小副川庄吉이다.(66)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勿禁 停車場의 東南方 凡十餘町 고립된 산 위에

(66)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66面.

있다. 주위 凡七百五十間의 石城이고 대부분 붕괴했고 일부는 鐵道工事 등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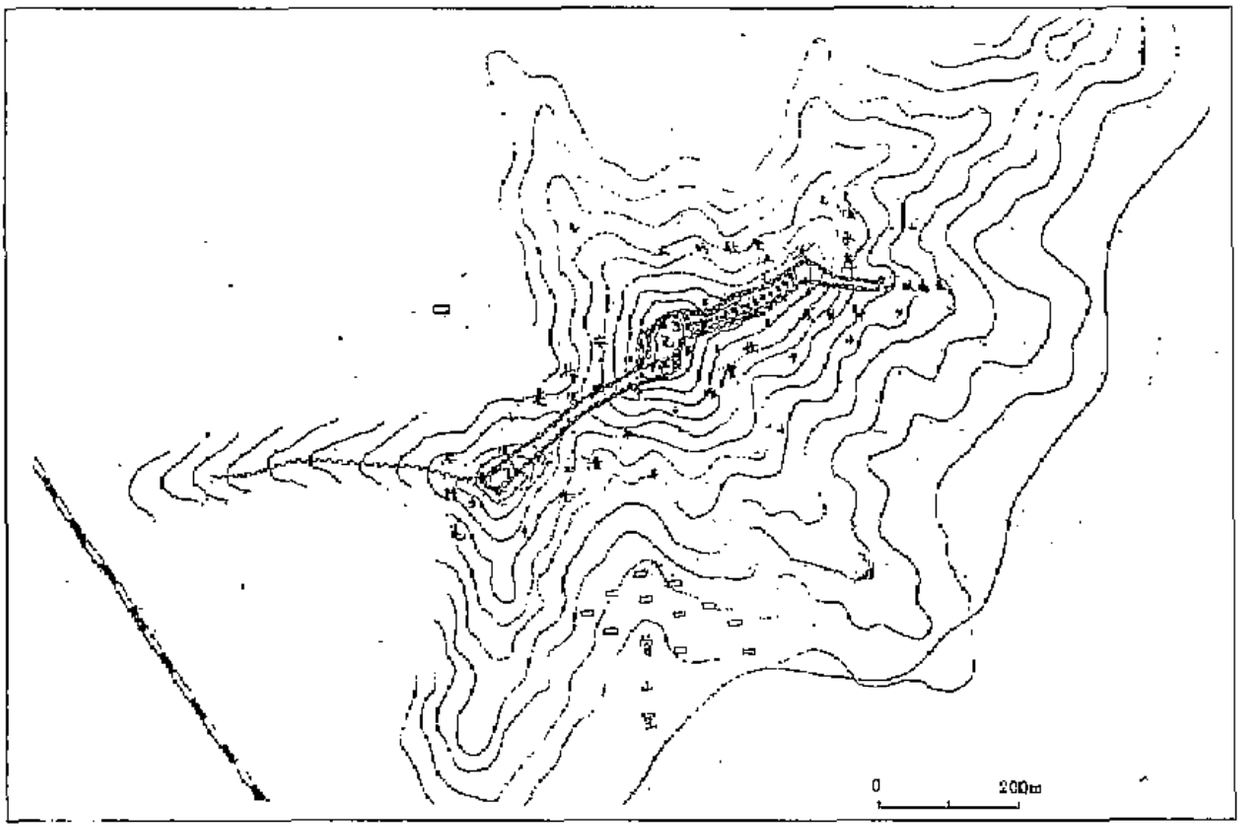
城址의 主郭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다. 城壁線은 石壁을 나타내는 凹凸線으로 그려져 있다. 等高線도 城址가 존재한 丘陵 전체에 그려져 있다. 主郭의 東部에 연결된 郭에는 「華鶴里共同墓地」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위치는 묘지로 되어 있다.

本圖에서 주목된 것은 「國有林」의 지정범위 외이 존재한 西側에 이르는 石壁과 南側 산록에 있는 居館部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점이다. 벌써 그 당시 산록의 居館部가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귀중한 史料이다.

그리고 梁山倭城은 현재 上端部分을 중심으로 石壁이 크게 붕괴되어 있는데 日本軍의 철퇴에 따른 「破城(그 성곽을 이용할 수 없도록 특히 中心郭의 壁面이나 모서리 부분을 故意로 파괴하는 행위)」의 가능성이 지적되어 있다.(68) 물론 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山林課의 『古蹟臺帳』의 기술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古蹟臺帳』의 기술에 보이는 철도공사는 인접한 1905年에 개통한 京釜線으로 추측되지만 그 공사 때 梁山倭城의 石壁을 파괴해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梁山倭城은 다른 倭城에 비하면 많이 파괴되어 있지만 그것이 「破城」에 의한 것인지 철도공사에 의한 것인지의 판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67) 前揭『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64面.
(68) 高田徹, 1998「梁山倭城の縄張り」,『倭城の研究』2號, 136面.

〈圖 11〉 梁山倭城圖 (部分)



5) 長門浦倭城

長門浦倭城과 松眞浦倭城은 長木灣 좌우에 위치하고 있고 長木灣 방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추측된다. 兩倭城은 壬辰倭亂 때 福島正則(후쿠시마 마사노리)·長曾我部元親(초오소카베 모토치카) 등이 축성을 담당해서 교대로 수비하였다고 한다.

長門浦倭城의 도면은 「慶尙南道 統營郡 長木面」이라는 소재지 표기만 있고, 國有林名, 史蹟의 種類, 土地利用狀況, 縮尺, 土地所有者名 등의 기재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축척은 그 크기로 1/6000이라고 보인다(圖 12). 長門浦倭城과 松眞浦倭城은 한 매의 도면에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하나씩 해설하려고 한다. 또 本圖는 國立中央博物館의 國有林境界圖에는 없는 도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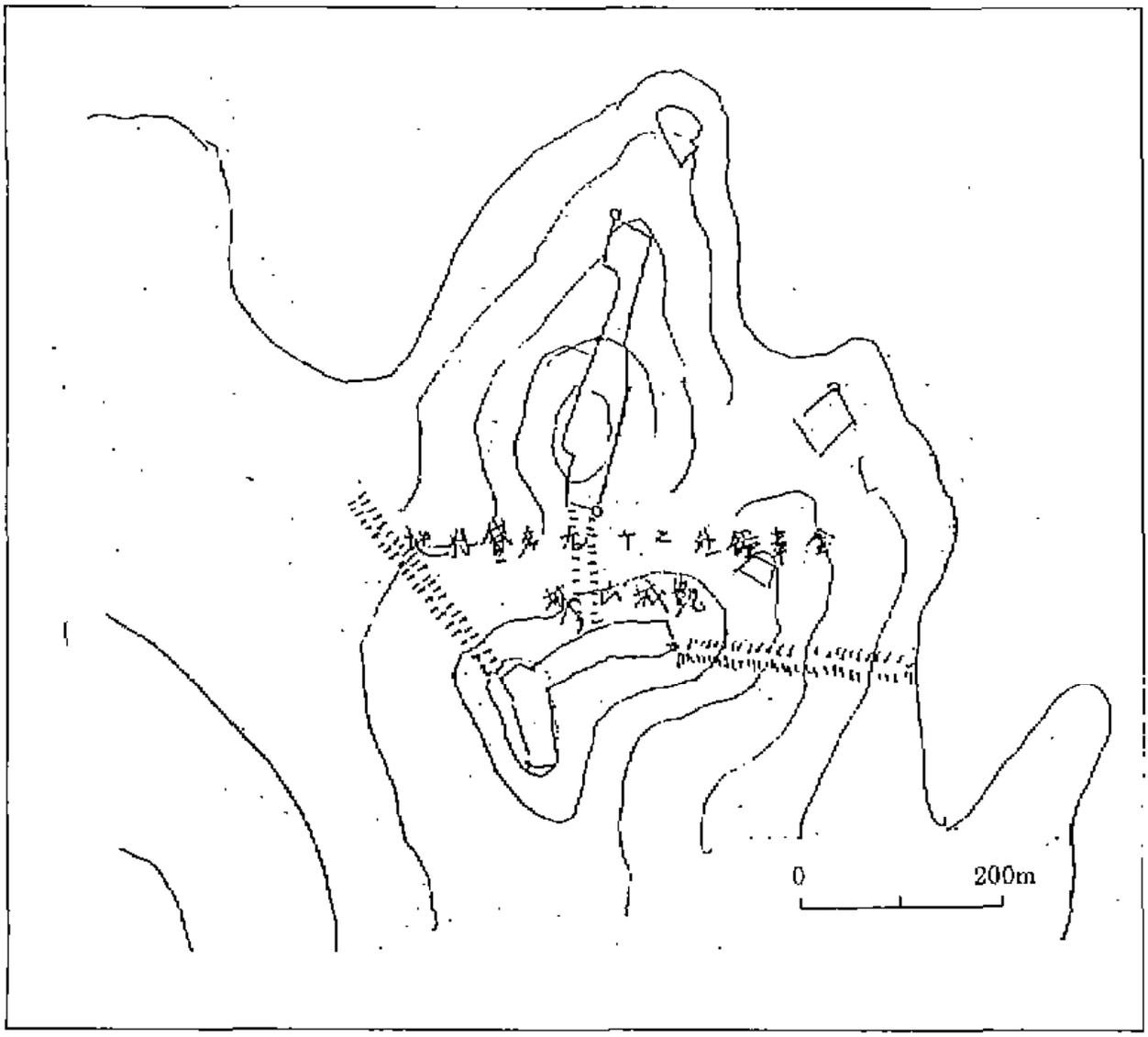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文獻備考에 "備局謄錄竝有倭城"이라고 쓰여 있고 文祿慶長之役 때 黑田長政가 축성한 곳이라고 전한다. 長木浦頭 西側 반도의 전부를 구획해서 城으로 하였다. 城은 石築이고 산봉우리에 二箇所 장방형의 城이 있고 土壘로 접속해서 또 東西에 土壘의 壁을 돌출시켰다. 별도로 石

築의 小城 三箇가 있다. 주위 약 一千二百間」이라고 기술되어 있다.[69]

城址는 長木灣의 西側에 있다. 城址에는 「凱城山城」이라고 기입되어 있고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의 기입은 없고 「金章鍾外二十九名貸付地」라는 기입이 있다. 城壁線은 凹凸線이 아니고 實線으로 그려져 있다. 等高線은 城址가 존재한 丘陵 전체에 그려져 있다. 本城의 특징인 장대한 土壘는 「게바線」으로 그려져 있다.

長門浦倭城은 山林課의 도면제작 당시는 「要存豫定林野」가 아니었지만 그 후에 「乙種要存豫定林野」로 지정되어 「凱城山城國有林」으로 보존되었다.[70]

〈圖 12〉 長門浦倭城圖 (部分)



(69)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28面.
(70)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28面.

長門浦倭城에 대해서는 실측도 등 先行研究[71]가 있는데 本圖에서는 그런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은 성곽유구가 그려져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필자는 아직 보고가 없는 北側 바닷가에 있는 郭을 확인하였다.[72] 그 郭은 도면에 그려져 있는 대로 石壁이 잘 남아 있었다. 부근에는 다량의 암키와나 수키와가 산재하고 있고 건물이 존재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東側 바닷가에 있는 郭도 보고되지 않은 유구인데 이것은 아직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城壁이나 土壘로 포위한 內側에 居館部를 설치한 유사한 例는 熊川倭城이나 安骨浦倭城이 있다.[73] 필자는 아직 그 유구를 확인하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本圖를 참고로 하면서 현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松眞浦倭城

松眞浦倭城의 도면은 전술한 바와 같이 長門浦倭城과 한 매의 도면에 수록되어 있고 제도상의 특징은 長門浦倭城과 거의 같다(圖 13). 단, 西側 郭에서 北西 해안에 이르는 石壁과 東側에 이르는 石壁이 凹凸線으로 그려져 있는 점은 長門浦倭城과 다르다. 城址는 長木灣의 東側에 위치하고 있다. 城址에는 「籍岩山城」이라고 기입되어 있고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의 기입은 없고 「朝鮮水産組合貸付地」라는 기입이 있다. 또 本圖는 國立中央博物館의 國有林境界圖에는 없는 도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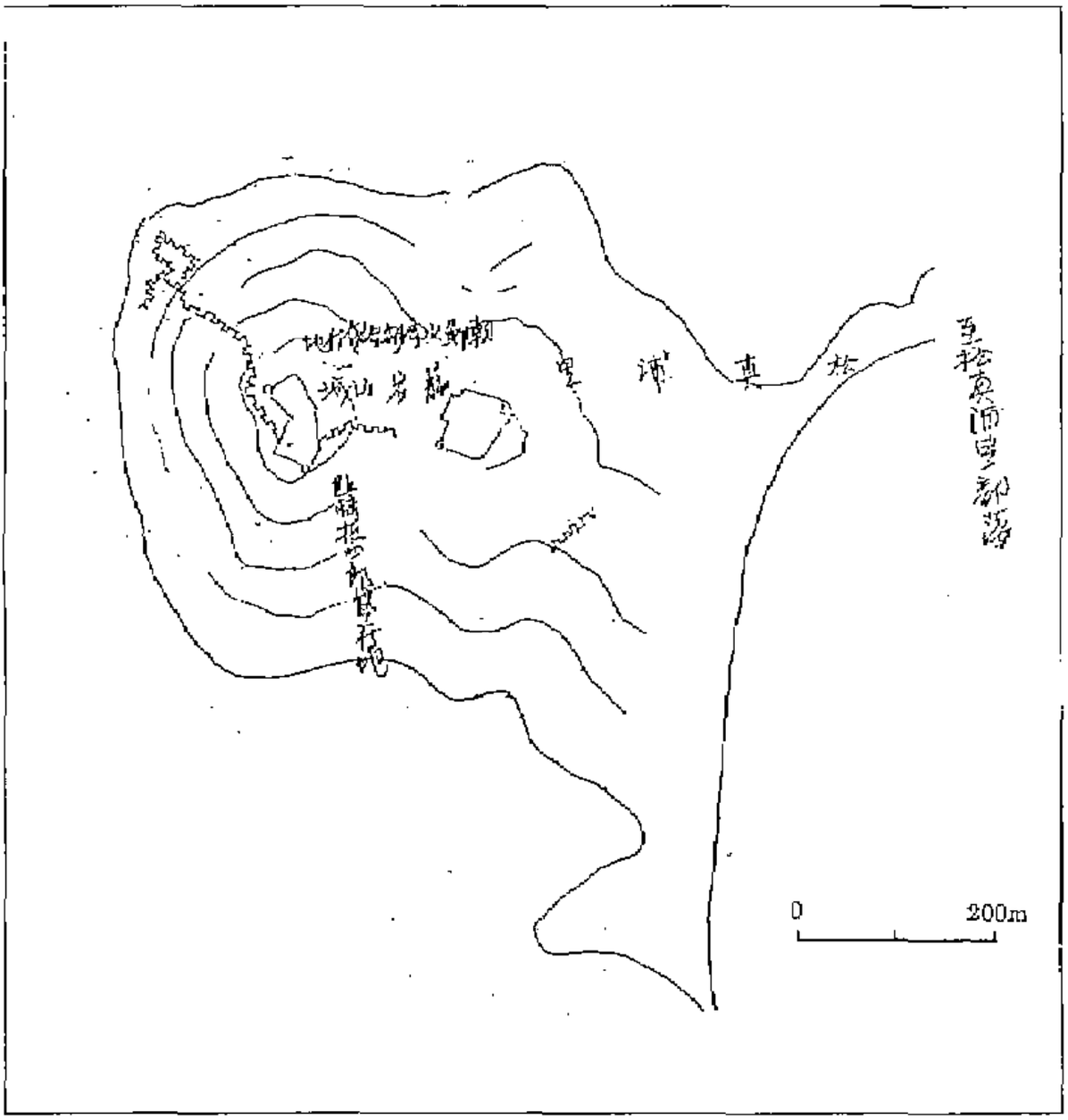
---

(71) 沈奉謹, 1995 「巨濟島城址」,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研究』, 學研文化社; 高田徹, 1997 「巨濟島 4 倭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創刊號; 角田誠, 1997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港灣防御の一形態: 巨濟島長木灣の場合について」, 『倭城の研究』創刊號.

(72) 필자는 2000年 2月 14日 韓瑞大學校 建築工學科長 李建河 교수님과 함께 현지를 답사해서 이 유구를 확인하였다.

(73) 倭城址研究會, 1988 「解明すすむ倭城の全貌: 朝鮮に殘された戰國最强の城郭群」, 『歷史讀本: 特集・誌上復元甦る戰國の城郭』482號; 山崎敏昭, 1998 「加德城と安骨浦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2號.

〈圖 13〉 松眞浦倭城圖 (部分)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文獻備考에 "備局謄錄竝有倭城"이라고 쓰여 있고 文祿慶長之役 때 黑田長政가 축성한 곳이라고 전한다. 長木浦頭 東側 반도의 尖端에 있고 산봉우리에 二箇所의 石城이 있고 二城間과 해안에 향해서 石壁을 돌출시켰다. 주위 약 四百八十間」이라고 기술되어 있다.[74]

松眞浦倭城은 山林課의 도면제작 당시는 「要存豫定林野」가 아니었지만 그 후에 「乙種要存豫定林野(朝鮮水產組合熊崎植四郎貸付地)」로 지정되어 「龍岩山城國有林」으로 보존되었다.[75]

(74)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28面.
(75)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28面.

松眞浦倭城에 대해서도 실측도 등 先行硏究[76]가 있지만 본도에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은 성곽유구가 그려져 있다. 이 유구는 東側 郭의 東南에 있는 石壁 표기이다. 이 장소는 城이 있는 반도와 배후의 육지를 차단하는 극히 중요한 곳인데 필자는 이 城壁의 흔적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77]

7) 永登浦倭城

永登浦倭城은 壬辰倭亂 때 축성된 倭城으로 축성과 수비를 담당한 大名은 島津義弘이다. 永登浦에는 倭城 이외에도 해안에 있는 舊永登邑城 안에 日本式 石壘가 존재한다.[78]

永登浦倭城의 도면은 「慶尙南道 統營郡 長木面」이라는 소재지 표기만 있고, 國有林名, 史蹟의 種類, 土地利用狀況, 縮尺, 土地所有者名 등에 기재가 없는 점은 長門浦倭城이나 松眞浦倭城의 도면과 같다(圖 14). 또 本圖는 國立中央博物館의 國有林境界圖에는 없는 도면이다.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흔히 日本古城이라고 칭한다. 文祿慶長之役 때 日本軍이 축성한 것이라고 한다. 城壁은 石築·土築 二種으로 되고 대략 方形의 本城에서 土壘로 二個所의 突壘에 접속한다. 주위 약 七百五十間」이라고 記述되어 있다.[79]

永登浦倭城은 山林課의 도면제작 당시는 「要存豫定林野」가 아니었지만 그 후에 「乙種要存豫定林野(李泰吉他五名、姜遠柱他十四名貸付地)」로 지정되어 「舊永登山城國有林」으로 보존되었다.[80]

城壁線은 石壁은 凹凸線으로 그려져 있고 『古蹟臺帳』에도 보이는 本城의 특징인 장대한 土壘는 「게바線」으로 그려져 있다.

---

(76) 沈奉謹·前揭論文(1995); 高田徹·前揭論文(1997); 角田誠·前揭論文(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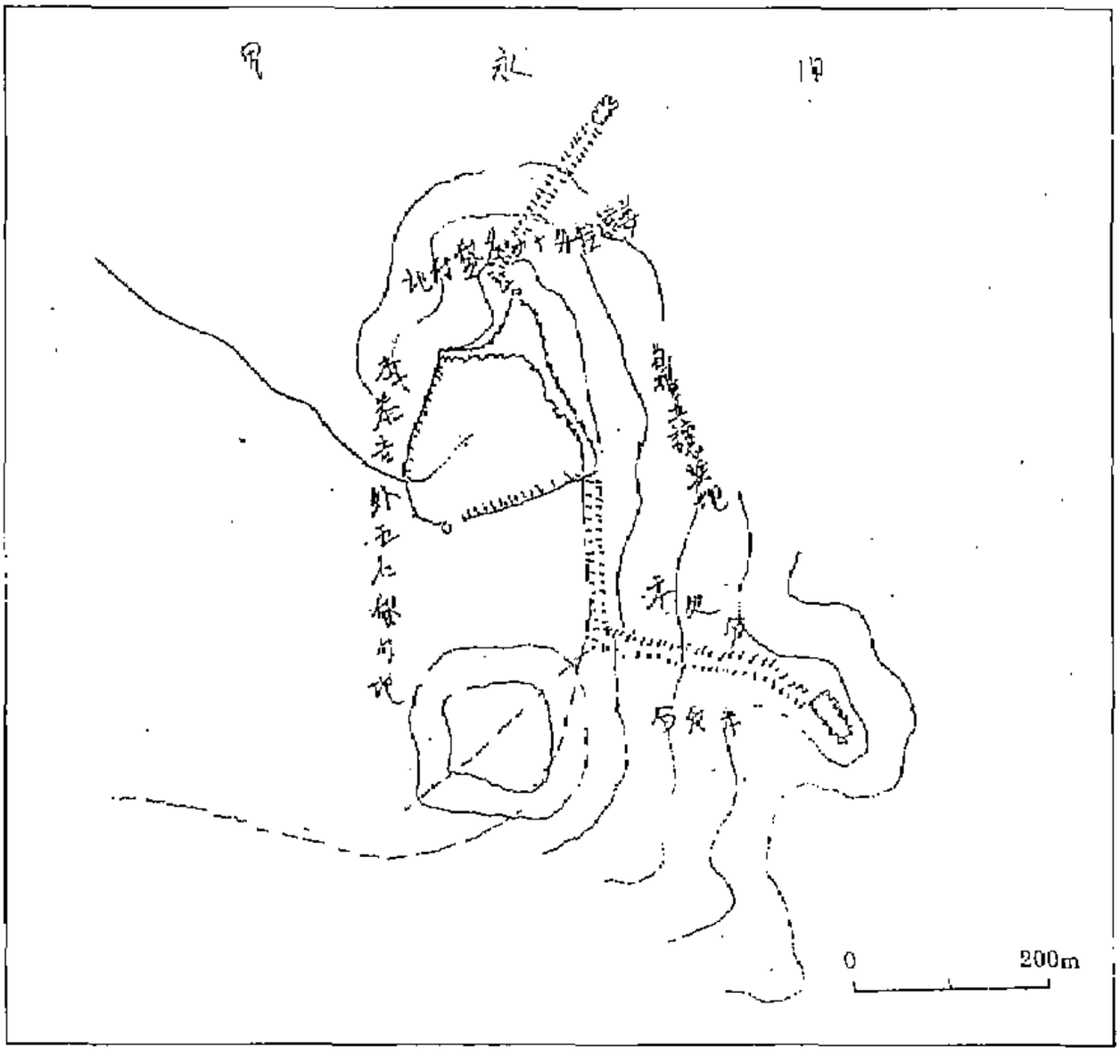
(77) 필자는 2000年 2月 15日 韓瑞大學校 建築工學科長 李建河 교수님과 함께 현지를 답사해서 유구를 확인하였다.

(78) 多田暢久, 1997 「舊永邑城內の日本式石垣」 『倭城の硏究』創刊號.

(79)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28面.

(80)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28面.

〈圖 14〉 永登浦倭城圖 (部分)



永登浦倭城에 대해서는 실측도 등 先行硏究[81]가 있지만 本圖에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은 성곽유구가 그려져 있다. 이 유구는 北側 郭에서 北東에 이른 土壘와 그 先端에 있는 石壁 표기이다. 필자는 아직 그 유구를 확인하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長門浦倭城이나 松眞浦倭城의 예를 보면 현존하지 않는 유구가 山林課의 조사 당시에는 아직 확인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다. 本圖를 참고로 하여 현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8) 熊川倭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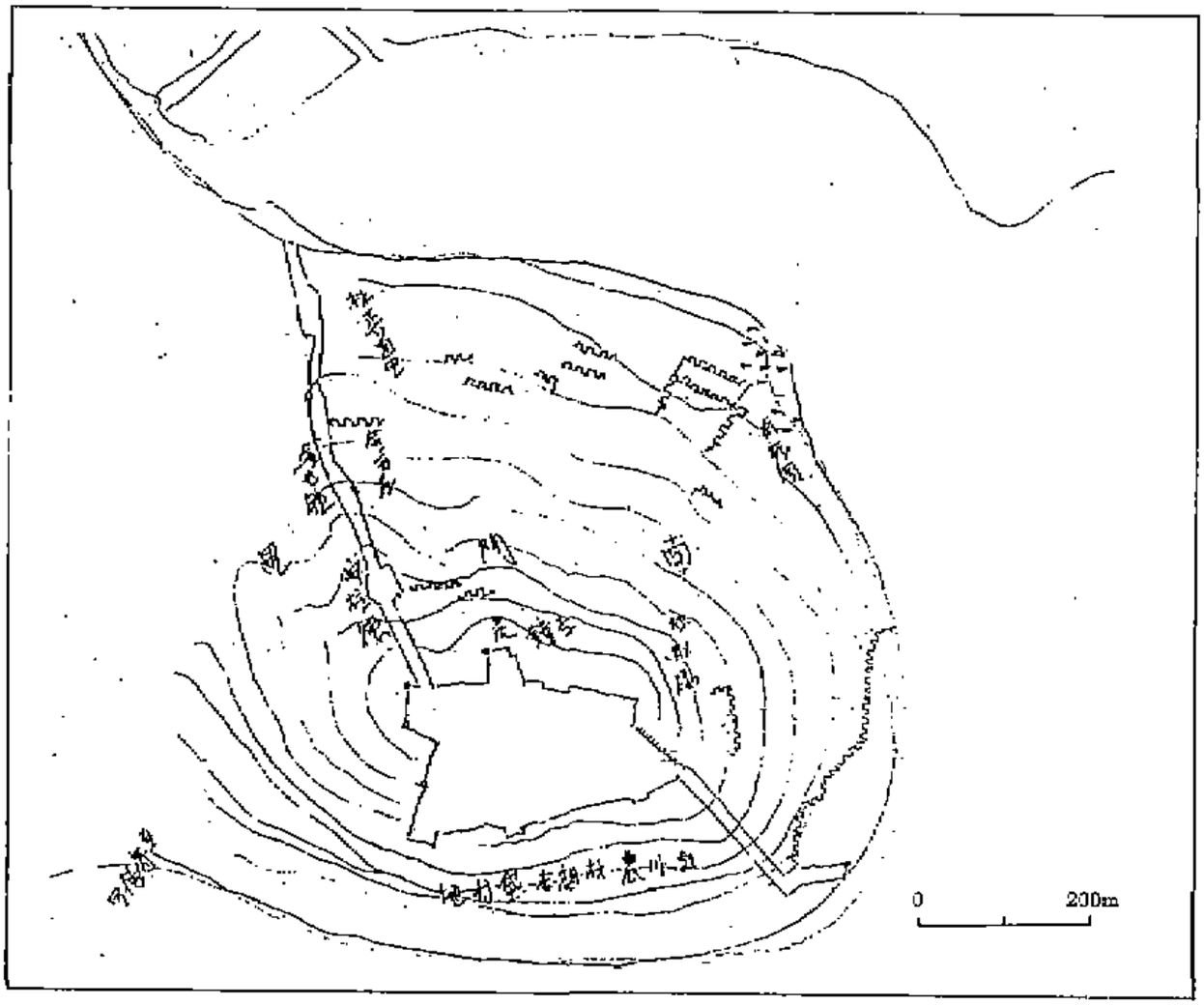
熊川倭城은 壬辰倭亂 때 西部戰線 최대의 거점으로 축성된 倭城인데 축성

(81) 沈奉謹 · 前揭論文(1995); 高田徹 · 前揭論文(1997).

과 수비를 담당한 大名은 小西行長이다. 倭城 중에도 최대급의 규모이고 休戰期에는 明의 沈惟敬과의 강화교섭의 무대가 되었다. 山頂에서 山麓까지 장대한 石壁은 현존한다.

梁山倭城의 도면은 「慶尙南道 昌原郡 熊邑面」이라는 소재지 표기만 있고, 國有林名, 史蹟의 種類, 土地利用狀況, 縮尺, 土地所有者名 등의 기재가 없는 점이 長門浦倭城이나 松眞浦倭城, 永登浦倭城의 도면과 같다(圖 15). 이 도면은 필적도 비슷해서 동일 인물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또 本圖는 國立中央博物館의 國有林境界圖에는 없는 도면이다.

〈圖 15〉 熊川倭城圖 (部分)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熊浦城이라고 칭한다. 반도의 끝을 구획해서 城으로 하였고 三重의 石壁을 쌓았다. 內城은 아직 완전한 곳이 있고 주위 약 千五百間. 文祿慶長之役 때 加藤淸正, 相良宮內大輔 등이 축성해서 여기에 웅

거하였다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82)

熊川倭城은 山林課의 도면제작 당시는 「要存豫定林野」가 아니었지만 그 후에 「乙種要存豫定林野」로 지정되어 「熊浦城國有林」으로 보존되었다.(83)

城壁線은 石壁은 凹凸線으로 그려져 있고 『古蹟臺帳』에도 보이는 本城의 특징인 장대한 土壘는 「게바線」으로 그려져 있다. 北東 사면의 좌우에는 本城의 특징인 장대한 石壁으로 방어된 石築의 居館部가 잘 그려져 있다. 熊川倭城은 지금도 그 유구가 잘 남아 있어 반도 전체에서 石壁을 확인할 수 있다. 熊川倭城에 대해서는 실측도 등 先行硏究(84)가 몇 가지 있지만 本圖에서는 先行硏究에서 보고되지 않은 성곽 유구가 그려져 있다. 이 유구는 北側 居館部에서 東側 半島先端으로 바닷가를 따라 있는 石壁인데 필자는 이 석벽 유구를 현지에서 확인하였다.(85)

9) 馬山倭城

馬山倭城은 丁酉再亂 때 축성된 倭城인데 축성을 담당한 大名은 鍋島直茂(나베시마 나오시게)이고 축성 후에도 鍋島軍의 部隊가 주둔하였다.

馬山倭城의 도면은 「馬山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尙南道 昌原郡 內西面」,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1200이다(圖16). 또 조사일시는 1916年 2月 1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海老原侃·岡本鐘松이다.(86)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흔히 馬山城 또는 島津城이라고 칭한다. 文祿之役 때 島津茂久가 築城한 것이라고 한다. 石築이고 주위 약 百四十間」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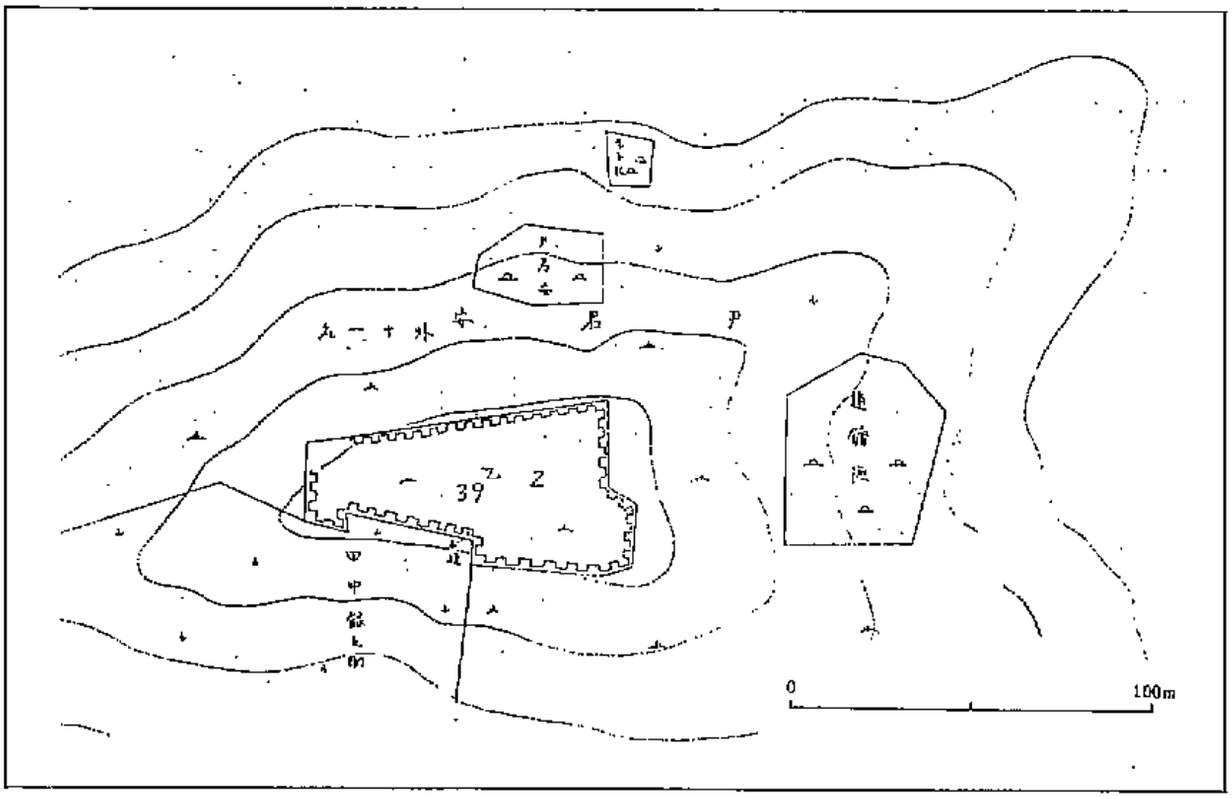
(82)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52面.
(83)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52面.
(84) 1961 『慶南의 倭城址』 韓日文化硏究所; 丁仲煥·趙啓纘·沈奉謹, 1976 「昌原郡內 城址調査 報告」, 『石堂論叢』1輯, 53-65面; 本田昇, 1979 「熊川城の構造」, 『倭城』Ⅰ, 82-87面.
(85) 필자는 2000年 2月 27日 大阪市文化財協會 黑田慶一氏, 京都橘女子大學 文學部 文化財學科 3學年 小澤晃子氏, 大阪府立堺聾學校敎諭 松岡利郞氏들과 함께 현지를 답사해서 유구를 확인하였다.
(86)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122面.

기술되어 있다.[87]

城址의 主郭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을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고 城壁線은 石壁을 나타내는 凹凸線으로 그려져 있다.

馬山倭城은 山林課의 조사 당시 「國有林」으로 보전된 城域은 石壁이 잘 남아 있었던 主郭 주변 즉 939坪(3,098.8㎡)뿐이었다. 그러나 1936年(昭和 11) 總督府의 古蹟指定 때에는 「國有林」 내의 主郭뿐만 아니라 主郭 주변의 民有地 20,229坪(66,755.7㎡)도 고적 범위로 지정하였고 그 면적은 21,168坪(69,854.4㎡)으로 확장되었다.[88] 게다가 1938年(昭和 13)에는 그 주변의 民有地 5,785坪(19,090.5㎡)이 추가 지정되어 지정범위는 26,953坪(88,944.9㎡)으로 확장되었다.[89] 따라서 결과적으로 山林課의 조사 당시에 비하면 그 보호범위는 약 29배로 확장된 셈이다. 여기서 朝鮮總督府에 의한 倭城保護政策이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圖 16〉 馬山倭城圖 (部分)



(87)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55面.
(88) 1936 「朝鮮總督府告示第三百十八號」, 『朝鮮總督府官報』 2806號(昭和 11年 5月 23日).
(89) 1938 「朝鮮總督府告示第三百九十三號」, 『朝鮮總督府官報』 號外(昭和 13年 5月 3日).

10) 新畓倭城(農所倭城)

新畓倭城은 壬辰倭亂 때 金海竹島倭城을 축성·수비한 鍋島直茂의 部隊가 金海竹島倭城의 支城으로 축성한 것이다.

新畓倭城의 圖面은 「新畓倭城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尙南道 金海郡 酒村面」,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6000이다(圖 17). 또 조사일시는 1916年 7月 18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海老原侃·岡本鐘松이다.(90)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新畓倭城이라고 칭한다. 文祿慶長之役 때 日本軍이 축성한 곳이라고 한다. 上下 二段 구성이고 上段은 가공한 石材로 基部를 완고하게 해서 그 위에 성토한 것 같다. 下段은 土築이다. 주위 약 百間」이라고 기술되어 있다.(91)

城址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고 城壁線은 土壘를 나타내는 「게바線」으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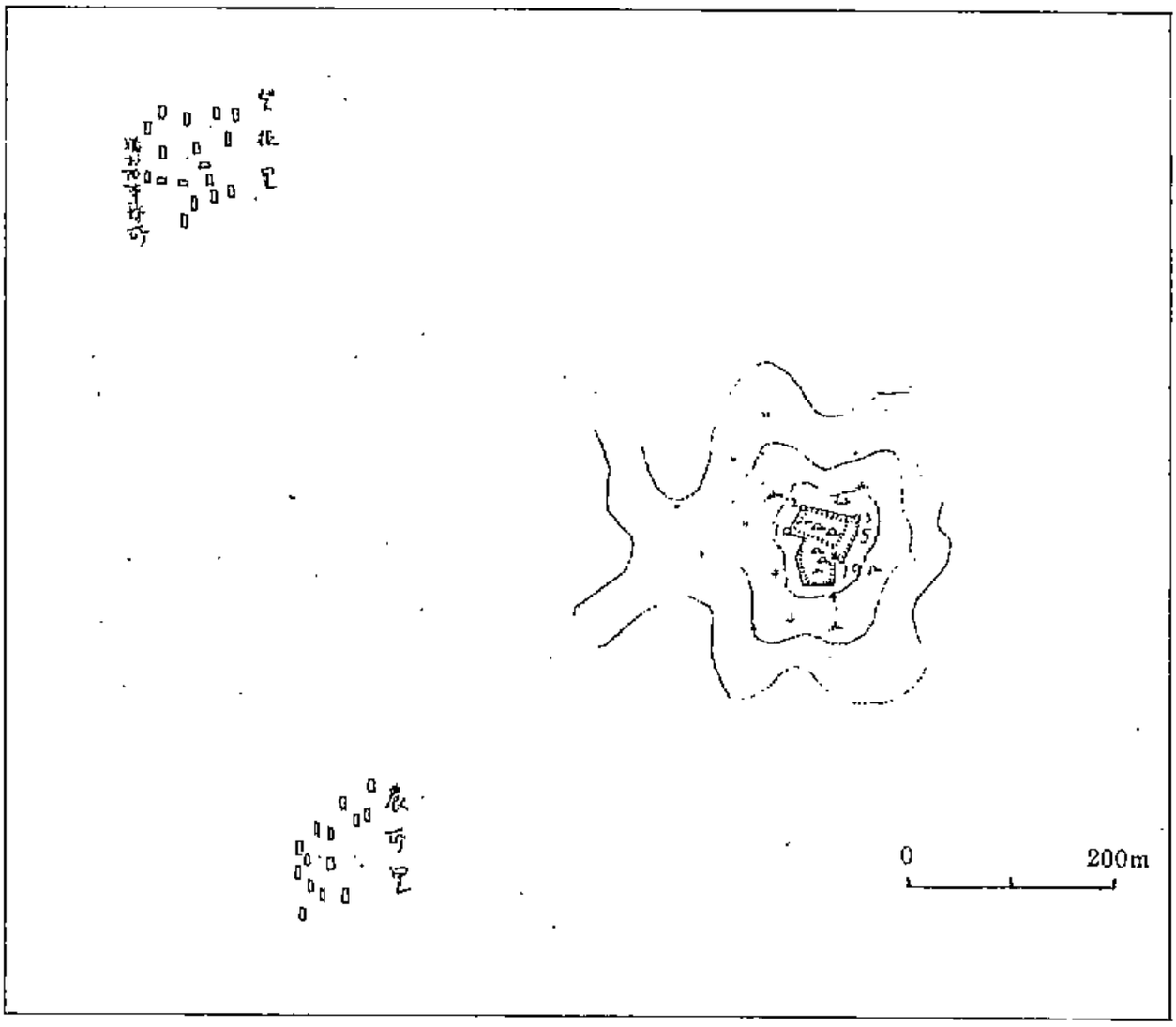
이 도면에 城郭이 內郭과 外郭으로 그려져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新畓倭城에 대해서는 先行硏究가 있지만 그것에서는 현상으로 城域을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92) 하지만 本圖에서는 東西에 가늘고 긴 主郭과 南側에 돌출한 郭을 「乙種要存豫定林野」의 범위에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山林課의 조사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 城域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新畓倭城은 金海竹島倭城(釜山廣域市 江西區 竹林洞)의 支城이고 따라서 사방 약 80m의 소규모 성곽이다. 그런 소규모 倭城인데도 總督府가 「乙種要存豫定林野」로 지정하였던 것을 보면 總督府의 철저한 倭城保護의 의향을 엿볼 수 있다.

---

(90)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26面.
(91)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58面.
(92) 高田徹, 1999 「金海竹島倭城の遺構と遺物 1. 縄張り」, 『倭城の硏究』 3號.

〈圖 17〉 新畓 (農所) 倭城圖 (部分)



11) 馬沙倭城

馬沙倭城은 金海竹島倭城의 支城이라고 하는데 두 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그 설에는 약간 의문이 있다.

馬沙倭城의 도면은 「馬沙倭城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尙南道 金海郡 生林面」,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6000이다(圖 18). 또 조사일시는 1916年 2月 1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海老原侃·岡本鐘松이다.(93)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馬沙倭城이라고 칭한다. 산봉우리에 있고 文祿慶長之役 때 日本軍이 축성한 것이라고 한다. 土築이고 上下 二段으로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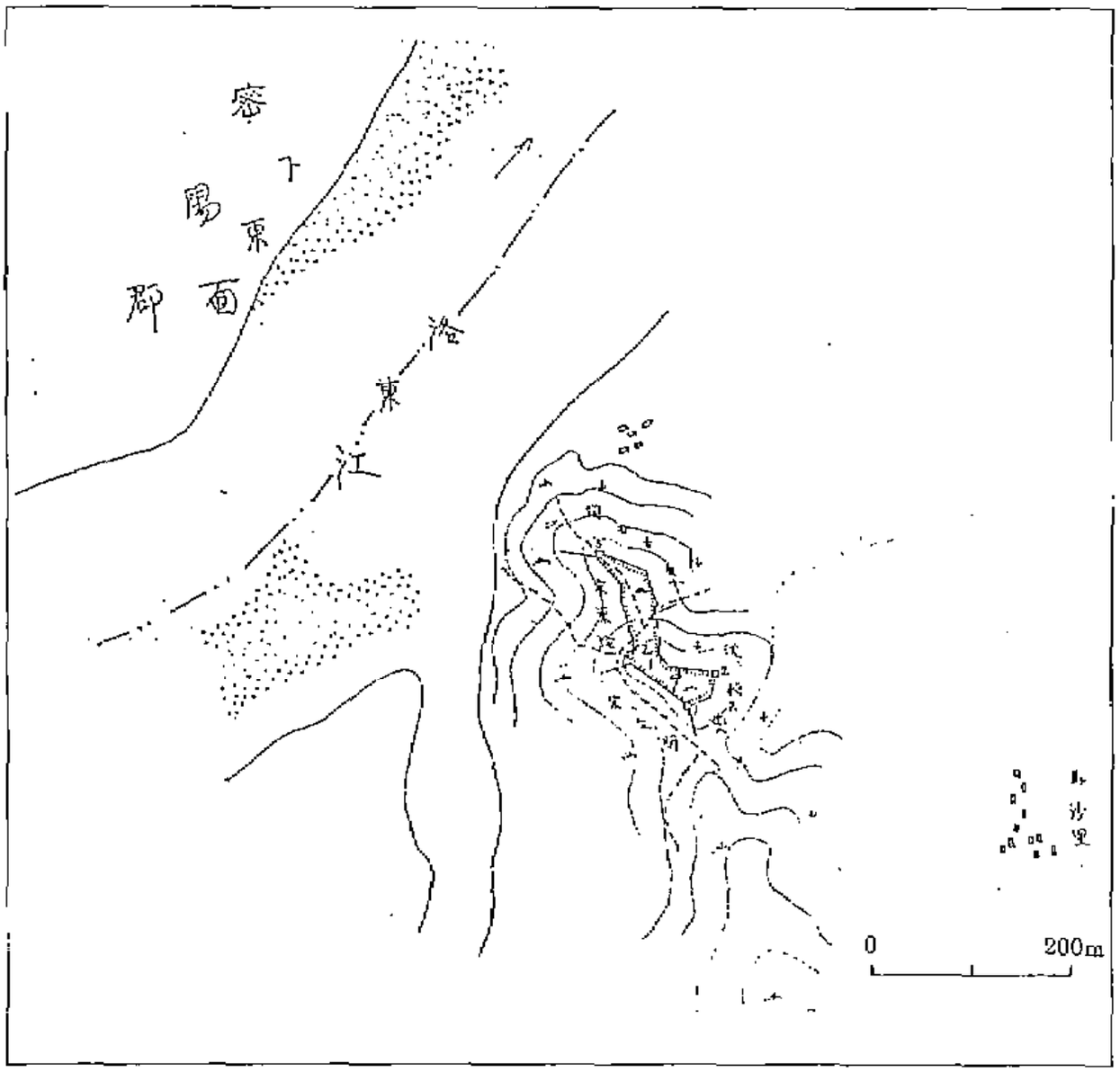
(93)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23面.

있다. 주위 약 二百三十間」이라고 기술되어 있다.(94)

城址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고 城壁線은 土壘를 나타내는 「게바線」으로 그려져 있다. 郭內에는 北側에 墳丘가 그려져 있고 일부는 묘지가 되어 있었다.

馬沙倭城은 密陽江이 洛東江에 합류하는 교통의 요충에 있고 日本軍의 水運 이용과 그 감시의 실태를 本圖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馬沙倭城은 洛東江을 이용한 수운을 감시한 「番城(반지로 : 감시를 위한 성곽)」이었다고 추측된다.

〈圖 18〉 馬沙倭城圖 (部分)



(94)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56面.

12) 望晋倭城(望津倭城)

望晋倭城은 丁酉再亂 때 泗川倭城의 수비를 담당한 島津義弘의 部隊가 泗川倭城의 支城의 하나로 축성한 것이다.

望晋倭城의 도면은 「望晋山城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尙南道 晋州郡 奈洞面 川田里·採菜里」,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6000이다(圖 19). 또 조사 일시는 1916年 5月 30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中村孝彦·板谷日이다.[95]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南江에 면한 晋州邑의 南方 凡十町에 있다. 주위 凡百八十間이고 土壘內에는 烽火臺의 基址가 있다. 文祿慶長之役 때 島津軍의 주둔지라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96]

城址 西側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고 城壁線은 土壘를 나타내는 「게바線」으로 그려져 있다. 城址 東側이나 南江河岸은 田地로 되어 있고 南江에 면한 西側에는 斷崖도 보인다. 南江을 垓字로 하고 斷崖絶壁을 城壁으로 한 천연의 要害地였고 200名의 守備隊로 數萬名의 明軍의 공격을 잘 방어하였다.

望晋倭城에서는 1597年(慶長 2) 11月 明軍과 日本軍의 望晋倭城 守備部隊 사이에서 치열한 攻防戰이 있었는데 그 전투의 일본측 기록 『征韓錄』에는 日本軍이 하안에서 明軍을 충격했다는 기술이 보인다.[97] 또 『古蹟臺帳』에는 望晋倭城 산록의 小城이 있었다는 기술도 있다. 즉, 「望晋山의 東北麓 南江沿岸에 小型의 城郭이 존재한다. 文祿慶長之役 때 島津軍의 주둔지라고 한다」는 기술이다.[98] 『征韓錄』과 『古蹟臺帳』의 기술 내용이 일치한 것을 보면 望晋倭城은 산봉우리의 本城과 산록의 子城으로 구성된 倭城인 것으로 추측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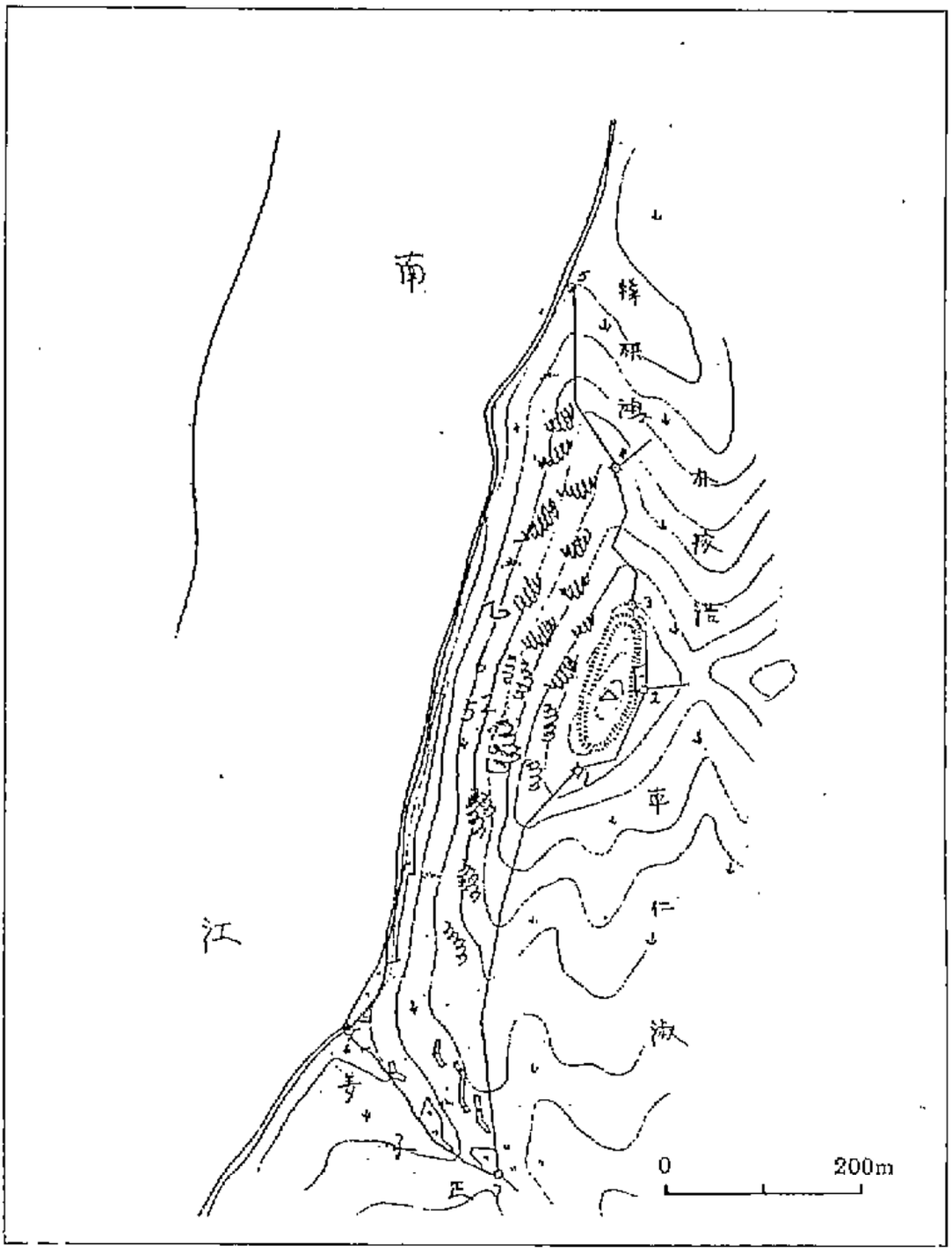
(95)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94面.

(96)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02面.

(97) 高田徹·黑田慶一, 1998 「望晋(津)城の遺構と遺物(前編·後編)」, 『南九州の城郭』7·8號.

(98)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02面. 단, 이 城址는 山林課의 조사 당시 「私有地」이었기 때문에 도면은 제작되지 않았다. 소재지는 晋州郡 奈洞面 川前里.

〈圖 19〉 望晋 (望津) 倭城圖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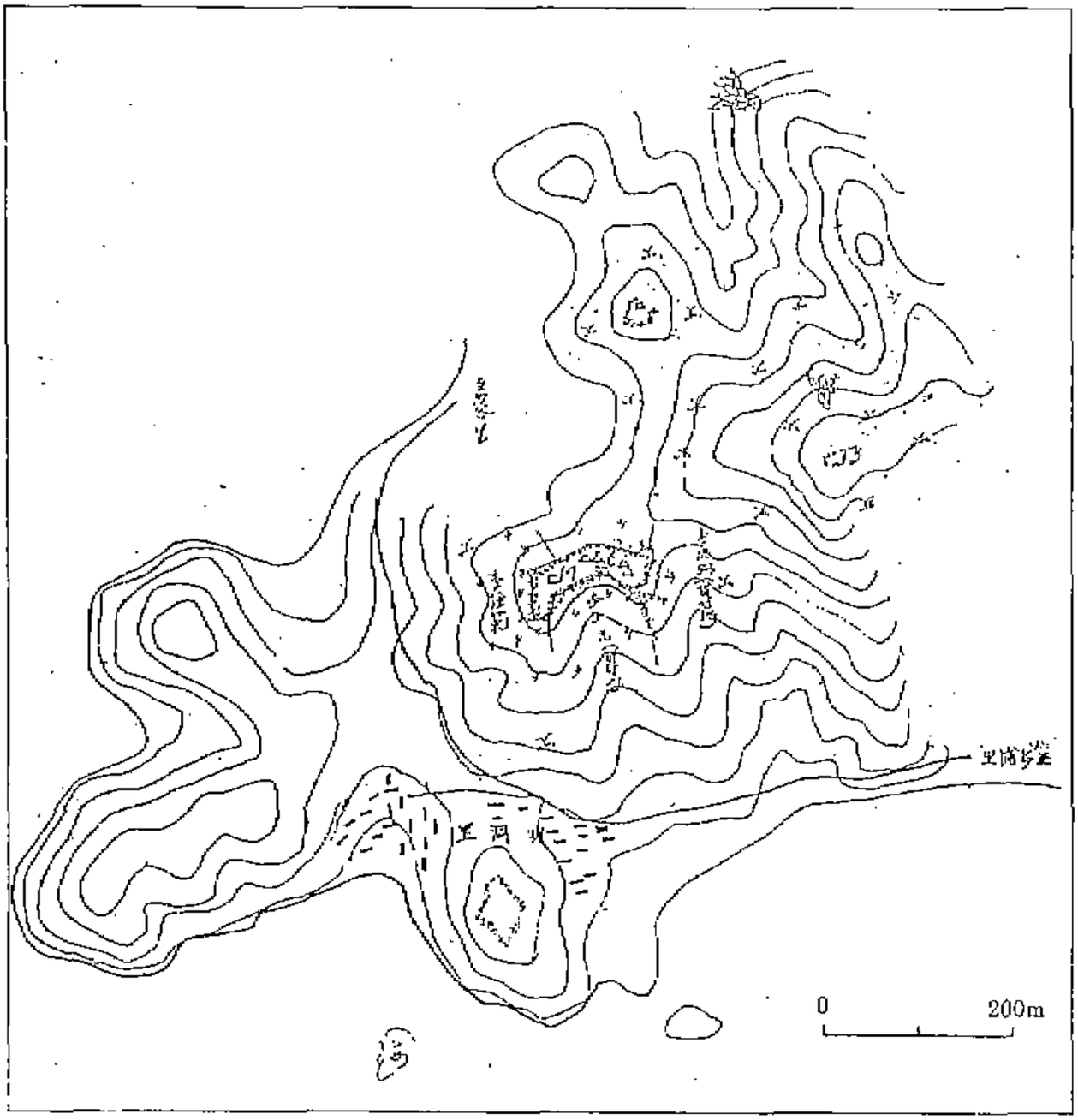
13) 明洞倭城

明洞倭城은 壬辰倭亂 때 熊川倭城의 支城으로 宗義智(소우 요시토시)·松浦鎭信(마쯔라 시게노부) 등이 축성해서 주둔하였는데 그 규모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다.

明洞倭城의 도면은 「明洞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慶

尙南道 昌原郡 熊邑面」,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6000이다(圖 20). 또 조사 일시는 1916年 7月 18日이고 조사 및 제도원은 海老原侃·岡本鐘松이다.(99)

〈圖 20〉 明洞倭城圖 (部分)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文祿慶長之役 때 日本軍이 축성한 것이라고 한다. 산봉우리에 있고 城壁은 石築이며 대부분 붕괴되었다. 城內는 上下 二段으로 구성되어 있고 平坦하다. 주위 약 二百間. 本城의 東北側 및 北側 二個所에 石築 小城이 있다. 土壘로 연결한 것 같다. 또 南側 耕地內에도 같은 石築의

(99) 前揭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1卷, 125面.

小城이 있었던 것 같다」고 기술되어 있다.(100)

城址 主郭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고 城壁線은 石築를 나타내는 타원형의 작은 원을 연결한 선으로 그려져 있다. 主郭 내에는 墳丘가 그려져 있고 山林課의 조사 당시는 일부 묘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明洞倭城에 대해서는 先行硏究가 있지만(101) 本圖에서는 先行硏究에서 보고되지 않는 성곽 유구가 그려져 있다. 그것은 『古蹟臺帳』에도 기술한 南側에 있는 小城이다. 이 小城은 바닷가 丘陵에 있고 다른 倭城의 특징으로 추측하면 居館部이었던 가능성이 있는데 本圖를 참고로 해서 현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4) 順天倭城

順天倭城은 丁酉再亂 때 宇喜多秀家(우키타 히데이에) 등이 축성을 담당하였고 小西行長 등이 주둔하였다. 그 규모는 倭城 중 최대급이고 장대한 外郭의 유구로 明·朝鮮連合軍과 日本軍의 치열한 공방전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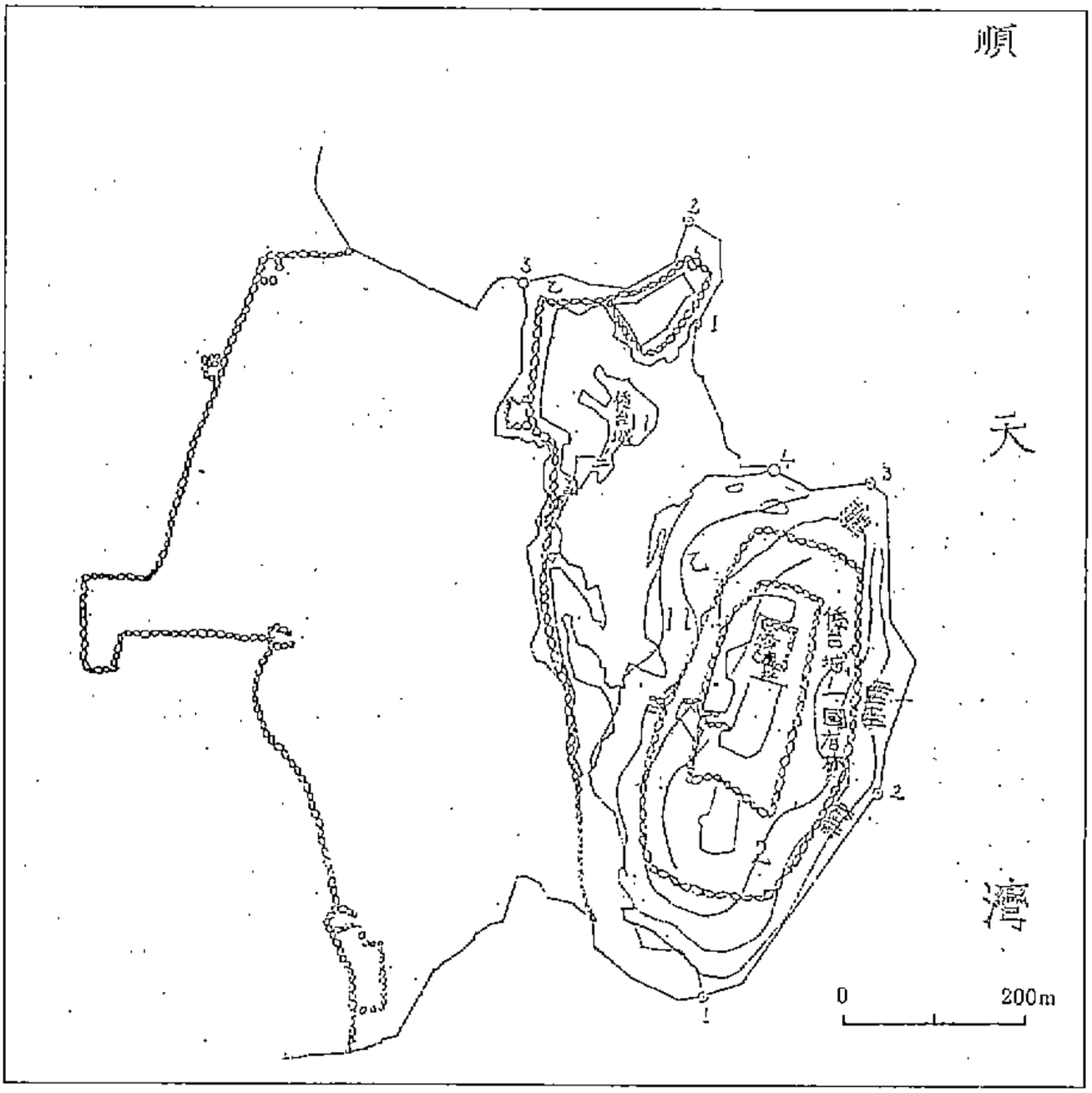
順天倭城의 도면은 「倭臺城의 二 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全羅南道 順天郡 海龍面 新城里」,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6000이다(圖 21).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倭臺城이라고 칭하고 石築이다. 內城 높이 十八尺, 너비 十二尺, 주위 약 三百間의 長方形이다. 外城 높이 十二尺 乃至 二十四尺, 너비 十二尺, 길이 六百間이다. 新城里 부락의 東南에 돌출한 尖端에 위치하고 있고 順天灣의 요로를 장악한다. 규모는 작지만 구조의 견고함은 틀림없이 朝鮮式 邑城이 아니다. 城壁 外部에는 반드시 垓字를 둘러치고 內城 중앙부에는 높이 二十尺四方의 天守閣址가 있다. 또 견고한 門址 十二個所가 있고 그 각 통로는 꼭 직각으로 曲入한다. 城壁의 石材는 모두 가공한 아주 웅대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垓字의 물은 유도한 것으로 추측되고 지금은 畓이

(100) 前揭『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352面.
(101) 丁仲煥·趙啓纘·沈奉謹·前揭論文(1976).

나 鹽田으로 변하였다. 근래에 梶谷延久라는 사람이 城內에 果樹園을 만들고 그 지방의 사람들은 各樓門 附近의 石材를 훔치고 있어 차차로 황폐해지고 있다. 壬辰亂時 日本軍先鋒 小西軍의 점거한 곳이라고 한다(李朝宣祖三年 小西軍攝津守所築). 新城里 부락의 北端에 한 작은 祠堂이 있다. 內部에 두 매의 畵像을 모시고 있는데 그 하나는 小西行長(緋緞의 甲冑를 걸친 것)이라고 전해진다. 촌민은 매년 一回씩 祭祀를 지낸다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102]

〈圖 21〉 順天倭城圖 (部分)



城壁線은 石築를 나타내는 타원형의 작은 원을 연결한 선으로 그려져 있다.

(102) 前揭『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208面.

本圖는 城址가 「倭臺城의 一 國有林」과 「倭臺城의 二 國有林」 二個所가 그려져 있으므로 各各 분석하려고 한다.

「倭臺城의 一 國有林」은 主郭部分이다. 중앙부에는 正方形의 「天守閣址」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二重의 石壁이 주위를 둘러치고 있다. 西側에는 門址가 2개소 있다. 城壁線은 상당히 약식으로 그려져 있고 현상과 비교하면 치졸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主郭 西側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고 主郭이 존재한 丘陵 전체가 「國有林」으로 지정되어 있다.

「倭臺城의 二 國有林」은 主郭의 西側에 있는 南北으로 가늘고 긴 지역이고 主郭을 방위하는 중요한 郭이다. 이 郭은 北側의 해안선에서 南側의 해안선까지 主郭이 존재한 반도부와 本土를 절단하는 것 같이 南北에 石壁을 그려져 있다. 北側에는 「乙種要存豫定林野」를 의미하는 「乙」이라는 글자가 기입되어 있고 南側 石壁의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全域이 「國有林」으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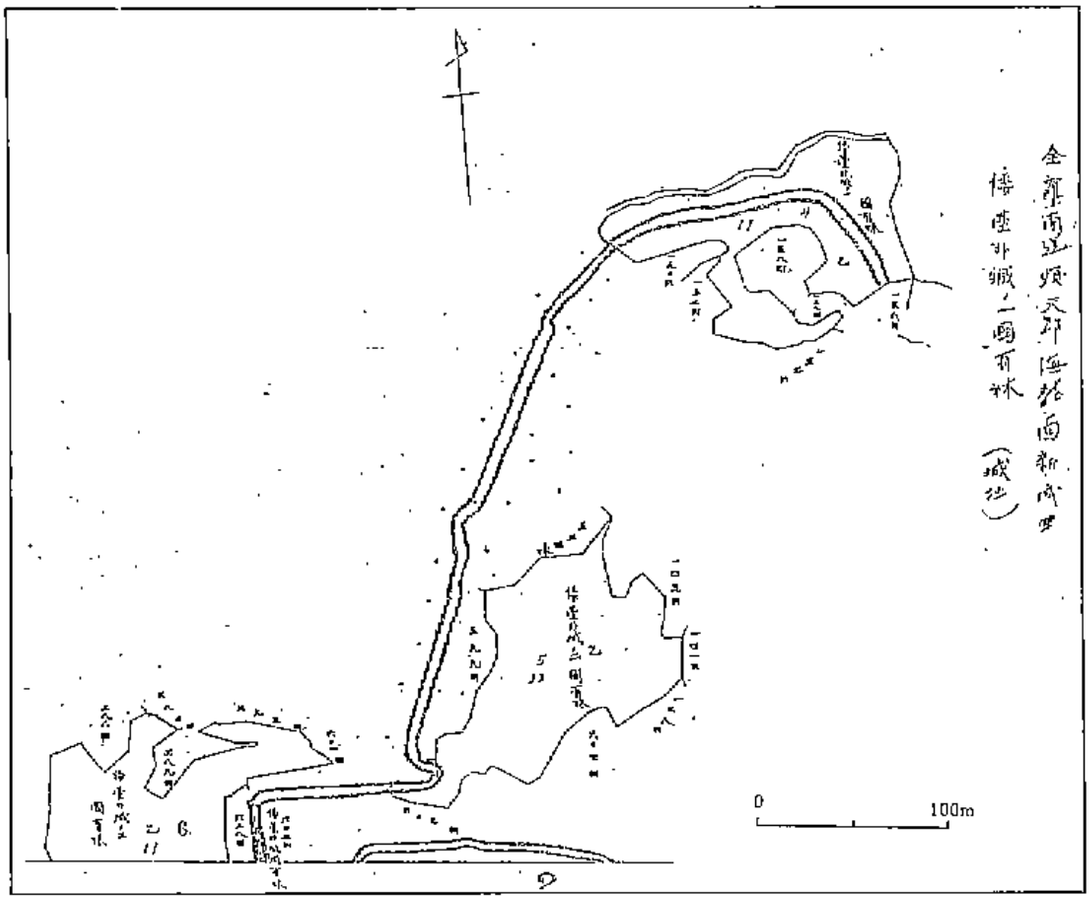
最北端의 「倭臺城의 二 國有林」 부분에는 사다리꼴의 郭이 그려져 있는데 그 郭은 『宇都宮高麗歸陣軍物語』 등 일본측 기록에 보이는 小西行長가 거주한 郭이라고 생각된다.(103) 日本陸軍 參謀本部의 伴三千雄가 1917年(大正 6)에 조사하였을 때는 이 郭을 확인하지 못했지만(104) 이 도면에서는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

15) 順天倭城外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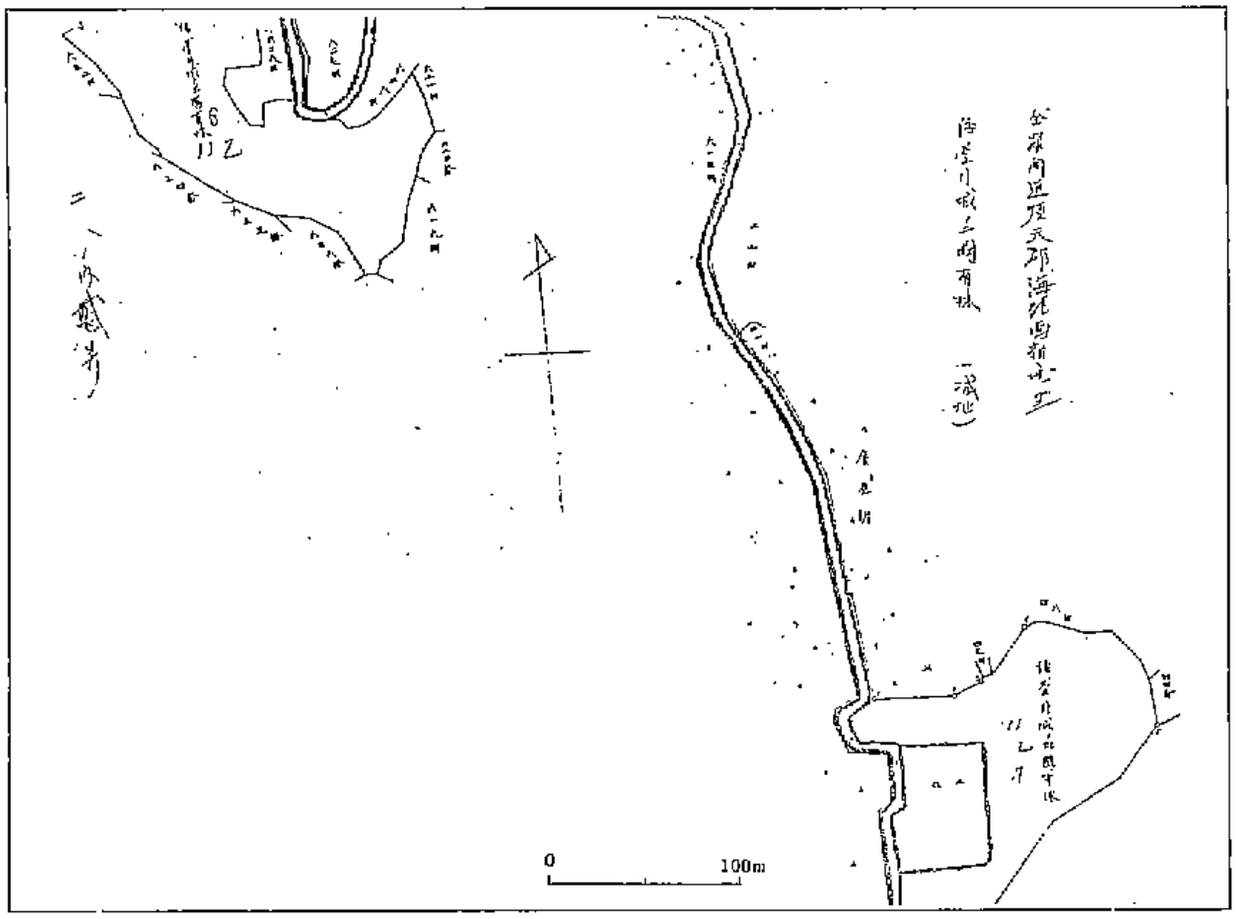
順天倭城外郭의 도면은 「倭臺外城의 一 國有林」「倭臺外城의 二 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도면 두 매로 제작되어 있다. 소재지는 모두 「全羅南道 順天郡 海龍面 新城里」, 史蹟의 종류는 「城址」, 축척은 1/1200이다(圖 22, 圖 23). 城壁線은 石築를 나타내는 타원형의 작은 원을 연결한 선으로 그려져 있다. 順天倭城의 도면은 필적이나 製圖法이 비슷해서 동일 인물에 위한 제작이라고 추측된다. 外郭部分의 「國有林」은 「倭臺外城의 一 國有林」에서 「倭臺外城의 四 國有林」까지 4개소에 분산되어 있고 外郭의 전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3) 宇都宮國綱 『宇都宮高麗歸陣軍物語』(『倭城の硏究』2號 所收).
(104) 伴三千雄・前傾論文(1921).

〈圖 22〉順天倭城外郭圖 (部分)



〈圖 23〉順天倭城外郭圖 (部分)



本圖는 축척이 1/1200으로 다른 도면에 비하면 대축척이고 外郭이 면면히 이어지는 모습은 압권이다. 축척이 크므로 세부도 잘 그려져 있어 당시의 外郭을 고찰할 때 무척 귀중한 史料이다. 특히 「倭臺外城의 四 國有林」에 보이는 「雉」狀의 돌출부나[105] 그것에 인접한 石壁(현재 소멸해서 확인할 수 없다)의 方形郭, 그리고 거대한 중앙의 돌출부 등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 本圖는 宅地化나 耕地化에 의해서 파괴된 유구를 복원할 때 중요한 史料가 된다.

특히 「雉」狀의 돌출부는 북측에 있는 것은 3×4m 정도의 작은 것이지만 남측에 있는 것은 東西17×南北18m의 대규모의 것이다. 그 당시 日本의 성곽에서도 櫓(야구라: 城樓·望樓)의 基壇이나 城壁을 조금 돌출시켜 城壁 아래에 도달한 敵兵을 側面攻擊하는 시설을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돌출시킨 유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熊川·西生浦·安骨浦·泗川·金海竹島 등의 倭城에서는 많은 「雉」狀의 돌출부를 확인할 수 있다(圖 24, 圖 25). 기능면이나 건조물에 대한 검토없이 유구상태만 보고 조선의 성곽시설인 「雉」를 모방한 것이라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異民族戰爭이라는 극도의 緊張狀態下에서 조선의 축성기술을 도입하였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壬辰倭亂 이후 축성된 일본 국내 성곽에서는 「雉」狀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1604年에 축성된 萩城이 그 예의 하나이고 東側 해안선의 城壁에 「雉」와 유사한 시설이 있다(圖 26). 萩城을 축성한 毛利氏는 壬辰倭亂에 참가해서 釜山 주변을 수비하였기 때문에 朝鮮에서 직접 봤던 「雉」를 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壬辰倭亂이 韓日 兩國의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유구의 확인 등을 통해서 더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6) 豊德川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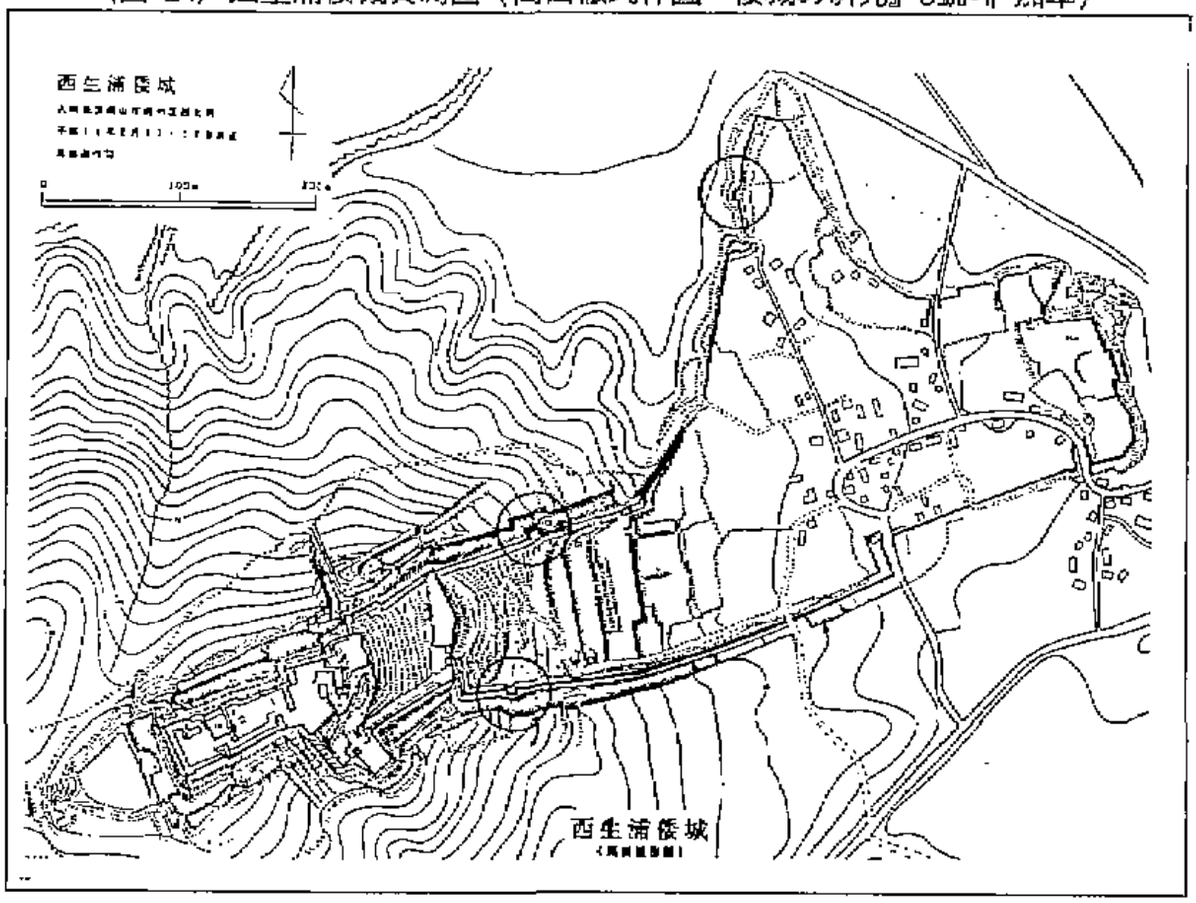
豊德川陣의 도면은 「豊德川陣址國有林」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고 소재지는 「京畿道 龍仁郡 邑三面 寶亭里·水技面 豊德川里」, 史蹟의 종류는 「陣址」, 축척은 1/600이다(圖 27).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丘上을 정지한 곳이다. 주위 약 五十間. 豊德川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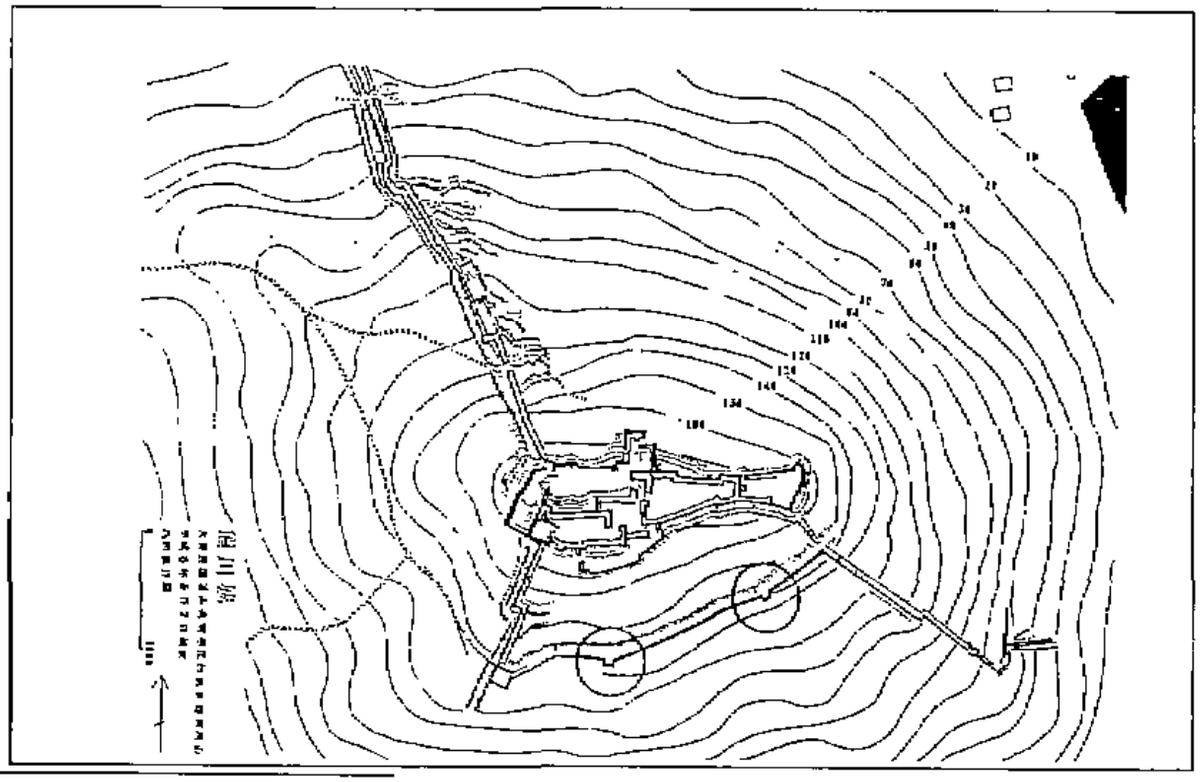
(105) 順天倭城의 外郭部에 있는 「雉」狀의 돌출부에 대해서는 高田徹氏가 언급하고 있다. 高田徹. 1998 「順天城の縄張りについて」, 『倭城の研究』2號. 45-46面.

址라고 칭하고 壬辰役 때 日本軍이 축성한 곳이라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106)

〈圖 24〉 西生浦倭城實測圖 (高田徹氏作圖『倭城の研究』3號에 加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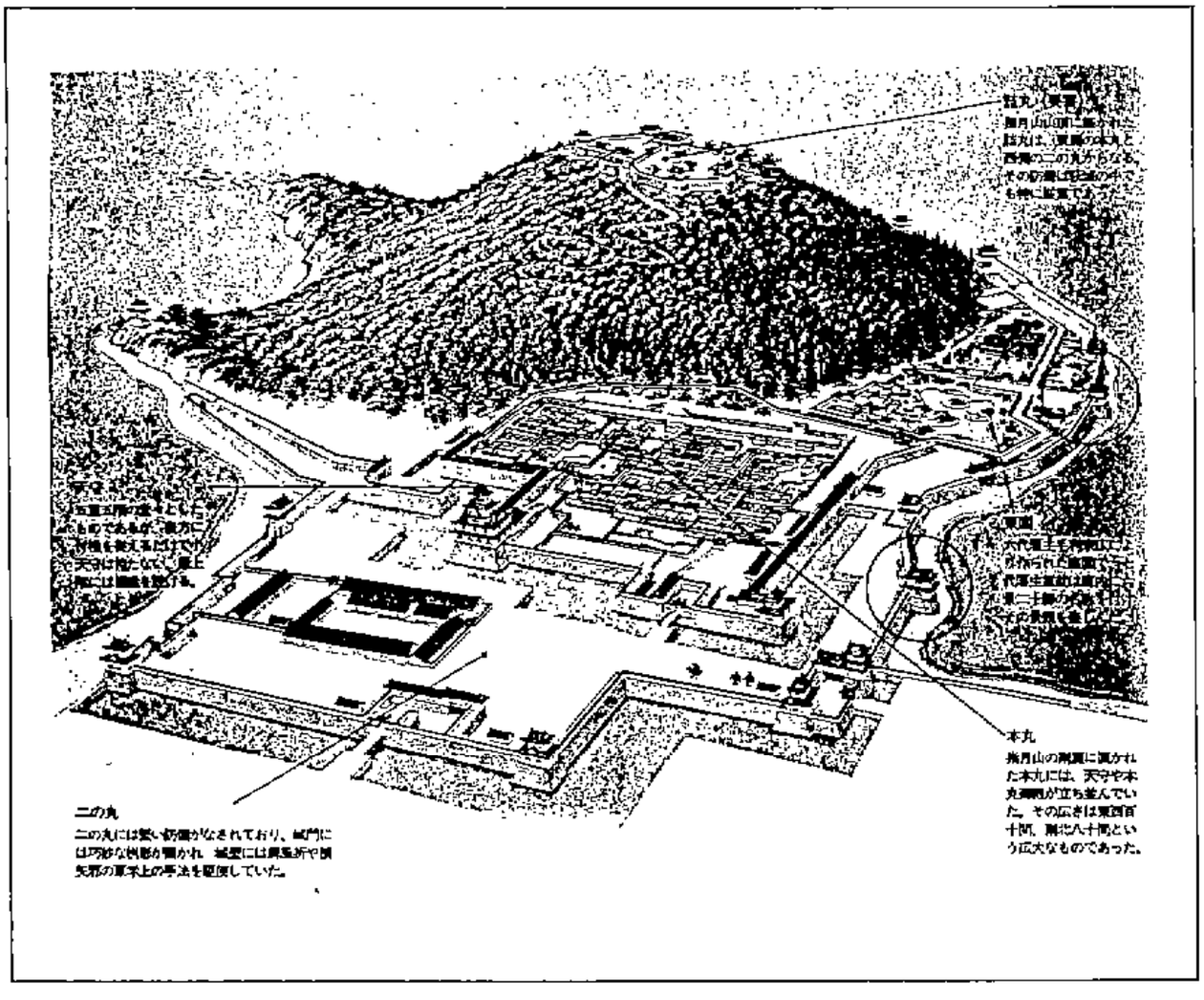


〈圖 25〉 熊川倭城實測圖 (高田徹氏作圖『倭城』倭城研究심포지움實行委員會에 加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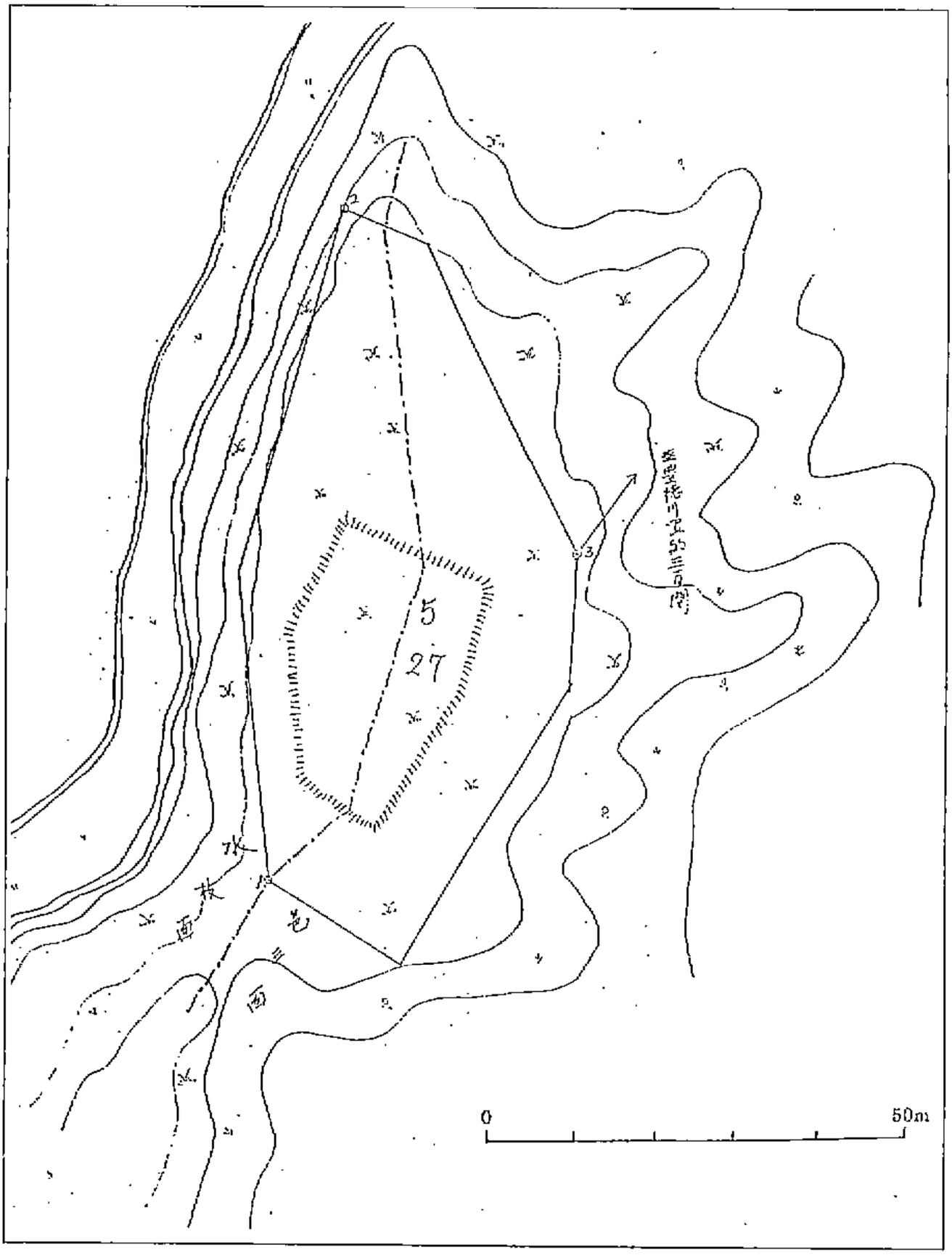


(106) 前揭『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8面. 현재 豊德川陣이 있는 丘陵의 이름은「壬辰山」이라고 하는 것도 壬辰倭亂과 관계 있다고 추측된다.

〈圖 26〉 1604년 築城의 萩城 (『萩城』 學硏에 加筆)



〈圖 27〉豊德川陣圖（部分）



城壁線은 土壘를 나타내는 「개바線」으로 그려져 있다. 本圖는 『朝鮮城址實測圖』에 수록된 城址 中 유일한 「陣址」여서 매우 특징적이다. 「陣址」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山林課의 調査 당시 「城址」가 아니고 「陣址」라고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곳은 壬辰倭亂 때 1592年(文祿 1) 6月경에는 脇坂安治(와키사카 야수하루)의 부대가 小壘를 쌓아 수비하고 있었고 8月~12月경에는 宇喜多秀家의 부대가 주둔했으며 그 후 島津義弘(시마즈 요시히로)가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던 중요 거점이다.(107)

1592年 6月의 平壤占領부터 1593年 4月의 漢城撤退까지 日本軍은 釜山에서 平壤까지 많은 「つなぎの城(繋城: 쓰나기노시로)」 또는 「つたえの城(傳城: 쓰타에노시로)」를 설치하고 있었다.(108) 그 「つなぎの城」 등은 朝鮮의 邑城을 개조해서 이용한 것이 많았는데 적당한 邑城이 없는 지방이나 중요한 지점에서는 신규로 축성한 경우도 있었다. 日本軍은 특히 漢城 남부의 漢江과 그 對岸을 연결하는 지역의 확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龍山에 배다리를 놓고 石築의 강고한 陣地를 橋頭堡로 축성한 것은 그 예의 하나이다.(109) 豊德川陣은 日本軍이 중요시했던 漢城과 남부를 연결하는 병참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つなぎの城」를 새로이 축성한 귀중한 예이다. 또한 아직 그 구체적인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つなぎの城」의 실체를 고찰하기 위해서 극히 중요한 史料이다.

17) 白蓮峰陣

白蓮峰陣의 도면은 「京畿道 高陽郡 纛島面 陵里」라는 소재지 표기만 있고, 區有林名, 史蹟의 種類, 土地利用狀況, 縮尺, 土地所有者名 등의 기재가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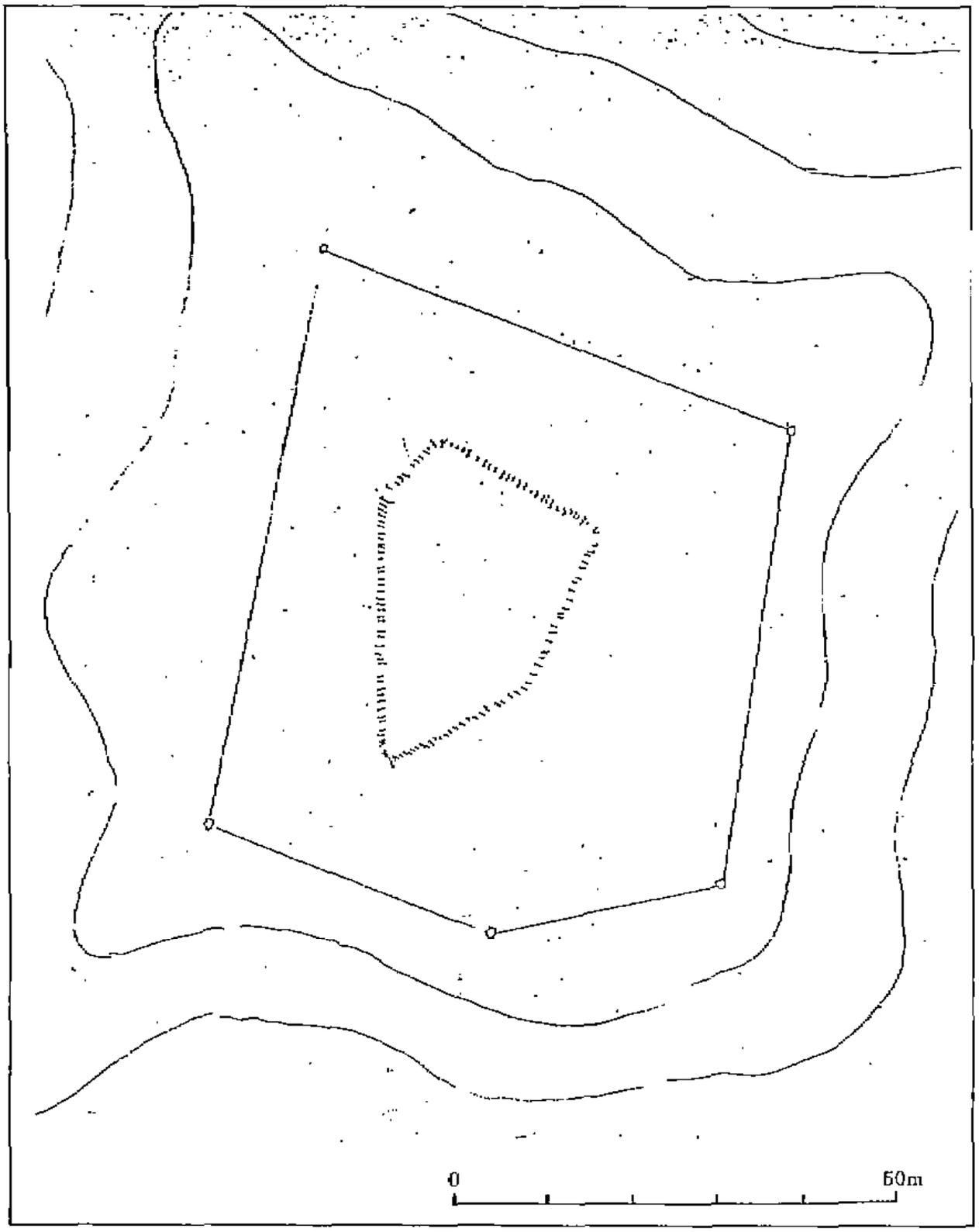
(107) 參謀本部編. 1965 『日本戰史: 朝鮮の役』, 復刻版, 德間書店, 133-134・234-232面.

(108) 「つなぎの城」「つたえの城」등의 用語에 관해서는 白峰旬氏의 연구가 있다. 白峰旬, 1999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秀吉朱印狀(城郭關係分)について」, 『倭城の硏究』3號.

(109) 太田秀春, 1999 「文祿の役(壬辰倭亂)における漢城の日本軍陣所について: 宇喜多秀家本陣における天守造營を中心に」, 『倭城の硏究』3號, 180-184面.

축척은 그 크기로 1/600이라고 추측된다(圖 28).

〈圖 28〉 白蓮峰陣圖 (部分)



山林課의 『古蹟臺帳』에는 「前記의 個所의 西北 약 三·四町에 존재한 獨立小丘 白蓮峰上에 壘址가 있다. 주위 약 三十間, 높이 약 二十尺, 內部는 平坦

하고 陶器, 瓦의 破片이 산포하고 있다. 本個所는 同面九宜里四六 金相殷이라는 사람이 大正五年七月二十五日附 勸第六六二四號로써 造林貸付許可를 받은 區域에 屬한다」고 기술되어 있다.(110)

白蓮峰陣은 山林課의 도면 제작 당시는 「要存豫定林野」가 아니었지만 그 후에 「乙種要存豫定林野」로 지정되어 「白蓮峰國有林」으로 보존되었다.(111)

城壁線은 土壘를 나타내는 「게바線」으로 그려져 있다. 『古蹟臺帳』의 이 白蓮峰陣에 대한 사적설명에는 日本軍에 의한 축성이라는 언급이 없지만 이 도면은 그 형태나 규모 등 豊德川陣의 도면과 극히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 白蓮峰의 城址도 日本軍의 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6. 結 論

近代 日本의 朝鮮 植民地化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海外膨張政策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형성이었다. 日本은 그 이데올로기를 역사적 배경에서 구하고 특히 「神功皇后의 三韓征伐」, 「任那日本府의 朝鮮支配」, 「豊臣秀吉의 朝鮮征伐」을 중요시하고 활발하게 연구해서 일반국민 계몽에 이용하였다. 秀吉의 「조선출병」은 朝鮮을 「征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扶植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日本이 壬辰倭亂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熊川灣略測圖』에 熊川倭城 같은 구축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나 「韓國倂合」 이전부터 日本人들이 倭城을 탐방하고 있었던 것에서 엿볼 수 있다.(112)

이 이데올로기 형성 문제는 「韓國倂合」 후에도 중요한 과제이었다. 특히 朝鮮總督府나 軍部에서는 통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 구축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總督府나 軍部에 의한 倭城調査는 「韓國倂合」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總督府는 고대에 있어서의 日本의 조선

(110)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2面.
(111) 前揭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2面.
(112) 예를 들면 당시 第五高等中學校 教師(後 陸軍大學 教授)였던 矢津昌永(야즈 마사나가)는 벌써 1893年(明治 26) 西生浦倭城을 踏査하였다. 矢津昌永, 1893 『朝鮮西伯利紀行』, 丸善株式會社

지배를 증명하는 「任那日本府」 조사와 동시에 壬辰倭亂 때의 日本軍 축성사적인 倭城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總督府가 조직한 「古蹟調査委員會」뿐만 아니라 農商工部(山林課)·軍部·民間·華族·土地調査局에서도 독자의 倭城 調査나 硏究가 실시되고 있었다.

京城帝國大學 교수진을 비롯한 당시의 학문적 권위자인 官學者를 동원한 「古蹟調査委員會」나 軍部의 장교들의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활용한 倭城調査는 일견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고 국민에 대해서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倭城의 조사·보호·현창은 결과적으로 秀吉의 조선 침략을 높게 평가하게 하고 日本의 조선지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이데올로기 형성에 이용되었다. 이 현창 과정에서 倭城의 사실이 왜곡되었는데, 앞으로 總督府에 의한 역사 왜곡을 壬辰倭亂이나 倭城을 통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본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督府의 倭城調査는 「古蹟保護」라는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一連의 식민지 통치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朝鮮城址實測圖』가 순수한 학문적 조사과정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식민지적 經濟再編成을 위한 强權的 土地收奪政策이었던 「林野調査事業」의 과정에서 제작된 것은 總督府의 「古蹟保護」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林野調査事業」에 의해서 조선인으로부터 수탈한 토지에 존재하고 있었던 倭城 등의 「古蹟」은 「國有地」로서 總督府의 「保護」를 받게 되었다.

總督府는 그런 倭城 보호에 비상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예를 들면 馬山倭城의 보호범위는 山林課의 「國有林」 지정 때 불과 939坪 정도이었는데 1936年(昭和 11) 古蹟指定 때에는 22배로 확장되었고 1938年에는 약 29배인 26,953坪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얼마 안 되는 豊德川陣址 같은 40×30m 정도의 소규모 倭城이 존재한 「國有林」까지 「國有地」로 존속시켜서 「保護」하였다.

朝鮮總督府의 「古蹟保護」에 대해서는 선학의 많은 연구축적이 있지만 倭城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 本論에서 검토한 『朝鮮城址實測圖』는 總督府의 倭城硏究(古蹟調査)의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경제형성의 근간정책인 「林野調査事業」을 연구할 때 극히 유용한 사료이다. 『朝鮮城址實測圖』는 「城址實測圖」라고 하지만 실제는 「國有林」과 그 안에

있는 「古蹟」의 조사이다. 그 제작 주체는 總督府의 農商工部 山林課이고 그 목적은 「國有林」을 「査定」해서 보존할 곳과 처분할 곳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의 참고자료 제작이었다. 그런데 總督府에서 제작된 本圖가 왜 京城帝國大學의 소유가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명확한 회답을 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생각된다.

本圖가 京城帝國大學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된 1933年(昭和 8)은 朝鮮總督府의 「文化政策」의 一大轉換期이었다. 즉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의 공포이다. 總督府는 「保存令」의 공포와 동시에 「古蹟」이나 「名勝」을 지정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적 지정시에 지정하려고 하는 물건을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委員會」에 자문할 필요가 있었다. 그 諮問案에는 물건마다 지정이유, 현상설명, 지정지역의 지번·지목·면적·토지소유자의 주소와 성명·현상의 실측도와 사진 등을 참고자료로 준비해야 하였다. 그 諮問案은 總督府博物館 직원 등이 중심으로 제작되었는데 제작을 지도한 사람이 總督府博物館 주임이었던 京城帝國大學 教授 藤田亮策(후지타 료오사쿠)이었다. 藤田는 諮問案 제작시 시작단계부터 직원을 지도하고 많은 원고를 집필하며 保存委員會에서는 스스로 물건의 해설을 담당하였다. 第二次大戰 末期 「保存委員會」에서 군사 중공업을 중시한 국책으로 石灰巖을 산출하는 鳳山鵂鶹山城(古蹟 第3號, 黃海道鳳山郡, 전형적인 高句麗式 山城)의 古蹟 指定 해제가 논의되었을 때 藤田는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였다.(113)

이런 당시의 상황으로 추측하면 古蹟 指定 作業의 중심이었던 藤田가 諮問案을 제작할 때의 참고자료로 山林課에서 제작한 「國有林」 도면의 복제를 京城帝國大學에 반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14) 「保存委員會」에서는 藤田 이외에도 京城帝國大學 教授인 小田省吾(오다 쇼우고)나 田中豊藏(타나카 토요조우)도 있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는 그들도 참고로 했다고 추측된다. 특히 諮問案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실측도 제작이나 토지소유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山林課의 도면은 극히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113) 有光教一, 1985 「私の朝鮮考古學(承前)」, 『季刊 三千里』41號, 155-157面.
(114) 전술하는 바와 같이 「釜谷洞國有林」 등의 添附文書도 다 원본이 아니고 복제이다.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國有林境界圖」는 『朝鮮城址實測圖』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서 「國有林境界圖」가 原圖이고 『朝鮮城址實測圖』는 복제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朝鮮城址實測圖』에는 「國有林境界圖」에 없는 도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本圖는 植民地 經濟編成의 근간을 이룬 「土地調査事業」과 雙璧을 이루는 「林野調査事業」의 연구에도 유익한 史料이고 「林野調査事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준다. 예를 들면 蔚山倭城이 있는 「鶴城山國有林」의 도면에는 「紛」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國有林」에 境界紛爭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山林課의 조사단계에서는 대부분이 朝鮮人 소유지이었던 倭城 주변의 토지는 고적지정 때에는 양상이 일변해서 많은 日本人이나 日本人의 會社가 토지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여기서 總督府의 강경한 토지수탈을 볼 수 있다.

山林課의 조사 당시 倭城의 모습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서술하였지만 豊德川陣 같은 작은 倭城도 그 때까지 日本軍의 「陣址」라고 기억되어 있었고 16세기말의 壬辰倭亂부터 300年 이상 경과한 20세기 초까지 주민간에는 壬辰倭亂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本圖는 倭城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성곽연구에도 극히 중요한 超一級 史料이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해방 이전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는 유구도 복원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倭城을 비롯한 韓半島 성곽연구의 새로운 근본사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長門浦倭城 등의 예를 보면 현존하지 않는 유구가 山林課의 조사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本圖를 참고로 하면서 현지를 상세하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本圖를 활용한 倭城의 성곽구조 해명,[115] 倭城의 축성기술이 韓日 兩國에 끼친 영향,[116] 倭城으로 본 壬辰倭亂 등 「壬辰倭亂期에 있어서의 倭城」, 그리

(115) 倭城의 고고학적 조사보고는 沈奉謹氏의 연구가 있다. 沈奉謹, 1995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硏究』, 學硏文化社.

(116) 倭城이 朝鮮城郭이나 日本國內城郭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車勇杰·中西豪·中井均·盧永九·柳在春氏의 연구가 있다. 車勇杰, 1985 「朝鮮後期關防施設變化過程」, 『韓國史論』9; 中西豪, 1987 「朝鮮側史料に見る倭城: その觀察と理解

고 朝鮮總督府의 상세한 倭城調査·保護·顯彰政策의 실태,[117] 倭城을 이용한 역사왜곡,[118] 倭城顯彰을 통한 조선지배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형성 등 「植民地期에 있어서의 倭城」에 대한 총합적인 연구는 韓國이나 日本에 남아 있는 사료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후일 정리를 기하겠다.

(필자: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碩士課程, 日本東北大學 大學院 國際文化研究科 博士課程)

謝辭·附記 本稿의 작성에 즈음하여 서울大學校 李泰鎭 教授님에게서 다대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韓瑞大學校 李建河 教授님에게서 倭城 답사에 전면적인 협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盧永九 先生님에게서 朝鮮時代 軍事史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大阪市文化財協會 黑田慶一 先生님에게서 倭城에 관한 사료제공이나 여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朝鮮城址實測圖』를 소장한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舊刊書庫에서 사료 열람에 편의를 받고 同圖書館 金昌燮 先生님으로부터 여러 면에서 많은 협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倭城은 남해안지역 개발에 따른 여파로 破壞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倭城은 역사교육을 위해서도 미래에 전해야 할 사적으로 倭城의 보존과 경관의 保全을 부탁드립니다.

の實相」, 『朝鮮學報』125輯; 中井均, 1998 「日韓城郭比較試論: 特に倭城の構造を中心として」, 『列島の考古學: 渡辺誠先生還暦記念論集』, 渡辺誠先生還暦記念論集刊行會; 盧永九, 1999 「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震檀學報』88; 柳在春, 1999 『近世 韓日城郭의 比較研究』 國學資料院. 또한 倭城이 壬辰倭亂 이후의 日本國內 城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中井均氏의 연구가 있고 倭城에 보이는 「雉」狀의 방어시설에 대해서는 高田徹氏의 연구가 있다. 中井均·前揭論文(1998); 高田徹, 1999 「倭城の遺構: その構造と評價を中心として」, 前揭 『倭城: 城郭遺蹟が語る朝鮮出兵の實像』. 그리고 木島孝之氏는 倭城과 壬辰倭亂 이후 축성된 日本國內 城郭의 구조비교를 통해서 大名權力의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木島孝之, 1998 「倭城と國內城郭の繩張り構造からみた近世初頭大名權力の樣相」, 『倭城の研究』2號.

(117) 이 문제에 대해서는 福島克彦氏의 논고가 示唆的이다. 福島克彦·前揭論文(1998).

(118) 倭城을 통한 歷史歪曲에 대해서는 許善道氏가 順天倭城의 사실왜곡의 예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許善道·前揭論文(1991).